

July 2022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사회문제의 관성화, 차이의 재발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가 올해로 세 번째 출간을 맞았습니다. 이번 발간을 앞두고 그간의 서문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2020년 첫 발간사에서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소는 본 조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넓게 바라보는 레이더(Radar)이자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레이저(Laser)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유형화와 사회문제 인식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문을 담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심층 분석 프레임도 제시했었습니다. 2021년 서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Narrative를 기록하는 Numbers를 꾸준히 기록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글의 마지막에 담았던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Narrative를 드러내는 Numbers만 담긴 것 같으니 2022년에는 보다 신나는 Narrative와 Numbers가 담기기를 소망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올해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시계열 변화를 관찰해 보니, 사회문제가 ‘관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위로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문제들(소득 양극화, 집값/주거부담, 노후대비 등)이 우리 사회에 고착되었고 사회 발전을 막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둘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3년간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진 키워드는 ‘차이(Gap)’였습니다. 우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Gap)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도모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에는 자본의 원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ESG가 국내에서 급부상하였는데 기업의 영역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긋나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ESG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은 환경(E)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 사회(S) 영역에서 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대비 심각한 사회(S)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도 기업도 관심이 낮은 경향은 여전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국민은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불공정 거래(G)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세대 간에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다르게 느끼는지도 조사해 봤습니다. MZ세대들이 인권, 개인 정보보호, 기업구성원 복지(이상 S),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감사와 독립성(이상 G)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시점에 있는 우리는, 작년과는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 서문의 마지막 다짐처럼 신나는 Narrative를 담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제가 관성이 되어가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본과 비용,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착한 일에 대한 칭찬, 격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다양한 보상이 주어지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집단들 간의 차이를 보니 ‘利害’의 차이를 어떻게 ‘理解’하고 맞춤형으로 채워줄지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Still muddling not yet through”일지라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해 봅니다.

원장 나석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점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국내 사회 전반에는 소득 양극화와 세대·성별·이념·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글로벌 위기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문제 진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임팩트 데이터&솔루션 플랫폼 '트리플라잇'은 2020년부터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함께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기획 및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사회문제와 관련된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해 '2022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과 전년 대비 급등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들에 대한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심각성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과 행동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ESG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집중도와 국민의 주목도 간의 미스매치를 분석했고, 특히 올해는 국민이 투자 의사결정시 기업의 어떠한 ESG 항목을 고려할 것인지를 추가로 물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는 차별과 갈등, 고용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연의 경고에 주목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지역발전 불균형',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2020~2021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이 크고, 한국의 심각성이 가장 큰 이슈로는 '어려운 재취업'이 떠올랐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현재와 미래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개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세대간 인식 격차와 갈등이 커진 현상에 주목하고, MZ세대와 다른 세대간 사회문제 인식 및 행동 격차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MZ세대는 민간 주도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차별과 갈등 그리고 사회안전망 이슈에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업 투자시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ESG 이슈에 있어서는 MZ세대는 인권·포용성·다양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을 넘어 화합을, 간극을 메우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전환점의 시기입니다.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명확한 '문제 정의'가 이뤄지고, 모두의 선택과 행동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 트리플라잇(triplelight)은 모두가 임팩트를 고려해 의사결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설립된 임팩트 데이터&솔루션 플랫폼으로, 개인·조직·사회가 임팩트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확산할 수 있는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8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9	Korea Impact Issues : Executive Summary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 핵심 요약 - Impact Issues: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 Priority Issues 국민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 Impact Action Plan 사회문제 해결 위한 행동의 변화 - Pandemic to Endemic 코로나와 함께한 3년 - Sustainability Issues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26	Process 연구 방법

CHAPTER 2

Impact Issues Analysis

2022 사회문제 분석

34	Public Social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 Social Awareness 사회인식 조사 - Present & Future Issue 현재와 미래 이슈
40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 Korea Problem & Difficulty Level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 수준 - Issue Tracking 이슈별 한국의 OECD 주요 순위
46	Covid 19 Survey Analysis 코로나와 국민의 삶
50	Collective Impact 협력을 통한 사회 변화 - Action Impact Analysis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 Channel & Information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과 인식도

CHAPTER 3

Special Analysis : Generation Gap

사회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62 **Impact Awareness Gap**
세대별 사회문제 인식 격차

65 **Value-Action Gap**
세대별 문제 해결 방식 격차

68 **Impact-Action Gap**
세대별 문제 해결 액션 격차

CHAPTER 4

Sustainability Issues Analysi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72 **Public Sustainability Issues**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73 **Sustainability Gap Analysis**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전략

76 **Sustainable Investing Strategy**
국민이 선택한 ESG 투자 전략

CHAPTER 5

Beyond 2022

우리가 만드는 미래

80 **Conclusion**
사회문제 해결 방향성 및 종합 제언

Chapter 1.

Overview

연구개요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트렌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의 봉쇄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식량 안보와 에너지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전환점의 시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두의 역할과 혁신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위기를 기회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 나타나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과 민첩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복잡한 사회문제들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도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간극과 갈등의 심화

사회 전반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 세대 갈등, 학력 차별, 빈부 격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갈수록 커지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기후변화, 인구절벽, 디지털 전환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더 나은 사회·환경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급변하는 환경과 글로벌 위기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국내 사회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키워드



현재와 미래의 연결

현재는 미래를 구성하며,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상호구성성(Inter-Construction)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미래 위기와 기회 고려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로 야기될 리스크를 파악 및 대비하고, 기회요인과 지속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액션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갈등을 직면하고, 간극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이 확장될 때, 모두를 위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사회변화의 주체인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해 비즈니스를 하려면, 지속가능경영 및 ESG 관점에서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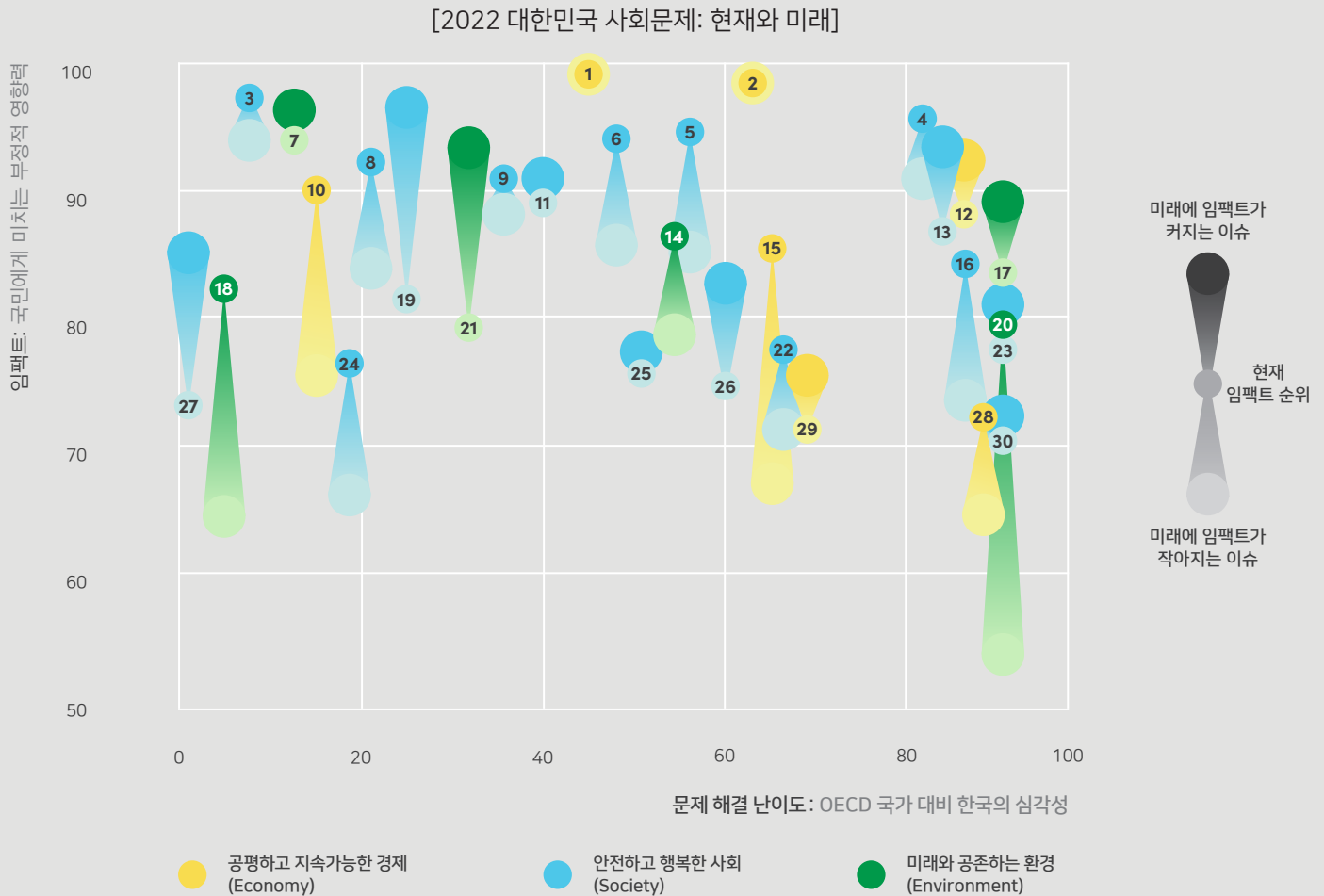
Korea Impact Issues : Executive Summary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 핵심 요약

Impact Issues :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을 선정하고, 해당 문제들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 Note : Y축 '임팩트(부정적 영향력)'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슈 데이터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한국이 주목하는 100개 사회이슈' 중에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 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X축 '문제 해결 난이도'는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현재도, 미래도 ... 집값 불안정 걱정

지난해 Top1 이슈로 꼽힌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는 올해에도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와 10년 후 미래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선택되어 불안정한 집값으로 겪은 어려움이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염려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 증가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상으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는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Top 3 이슈로 꼽혔습니다. 국민들은 금융 피해, 성범죄 등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악용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갈등 심화

갈등과 차별 이슈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는 2020년 19위, 2021년 13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8위, ▲10)'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해 학력 차별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지역발전 불균형(22위, ▲3)',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27위, ▲6)'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모습입니다.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사회통합에 대한 니즈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증가

2021년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슈 5위를 기록한 '미세먼지 증가'는 올해 15계단 하락한 20위를 기록한 반면, '폭염·한파 증가(7위 유지)', '지구 온난화(21위, ▲3)'는 소폭 상승하거나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줄어들며 함께 감소한 미세먼지 대신, 대형 산불, 폭염 등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자연의 변화에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17위)'이 전년 대비 10계단 상승하며, 친환경 기술 개발이 시급함을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순위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현재 임팩트(전년 대비)	미래 임팩트(전년 대비)	문제 해결 난이도
1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100(-)	100(▲2)	45
2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99(-)	99(-)	63
3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8(▲5)	94(▼2)	8
4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97(▲2)	91(▼4)	81
5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96(▲8)	85(▲2)	56
6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95(▼2)	86(▼6)	47
7	폭염·한파 증가	94(-)	97(▲4)	13
8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93(▲10)	84(▲5)	21
9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92(▼6)	89(▼5)	36
10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91(신규)	76(신규)	16
11	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90(▼1)	92(▲1)	40
12	어려운 재취업	89(신규)	93(신규)	87
13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88(▼3)	96(▼1)	83
14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87(-)	80(▼7)	54
15	청년 일자리 부족	86(▼6)	68(▼4)	65
16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5(▼4)	74(▼2)	86
17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84(▲10)	90(▲5)	92
18	대형산불 증가	83(▲56)	65(▲47)	4
19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82(-)	98(▲8)	25
20	미세먼지 증가	80(▼16)	55(▼34)	92
21	지구 온난화	80(▲3)	95(▲5)	32
22	지역발전 불균형	79(▲3)	72(▲7)	66
23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78(▼8)	73(▼9)	92
24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77(▼13)	67(▼11)	19
25	만연한 특권과 편법	76(▼2)	79(▲15)	51
26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75(▲2)	83(▲10)	60
27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74(▲6)	87(▼1)	1
28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73(▼6)	65(▼2)	90
29	가계부채 증가	72(▲3)	78(▼6)	69
30	저출산 문제	71(▼14)	82(▼6)	92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10위), 어려운 재취업 (12위)는 '2022년 대한민국 사회이슈 100'에 새롭게 편입된 이슈로 전년도 비교값이 없음.

현재보다 미래, 떠오르는 이슈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국민들은 전지구적인 위기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와 10년 후 미래에도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슈 Top5는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지구온난화,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부족, 정부 재정 적자 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 사회, 환경 차원의 대비가 시급함을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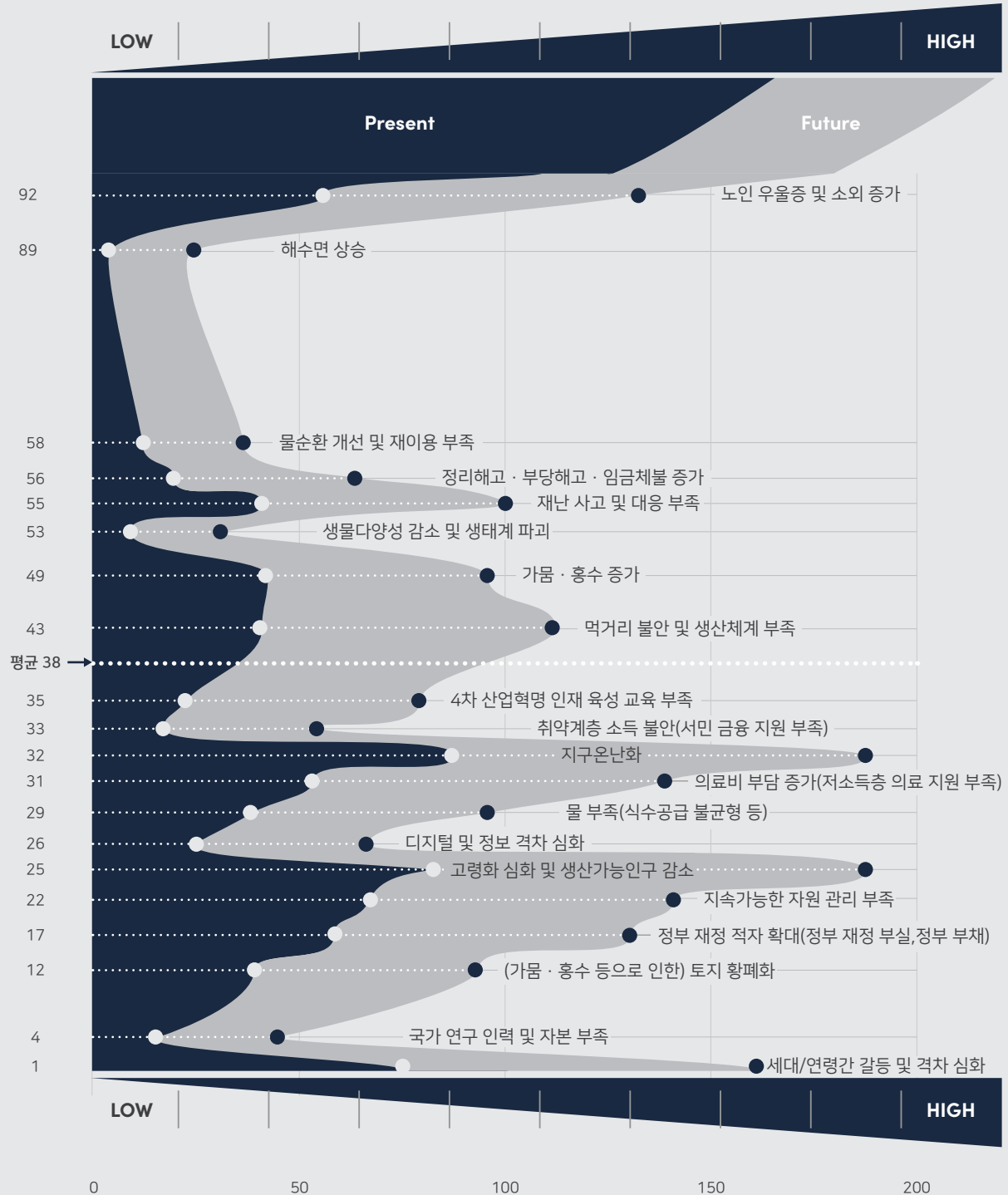
한편, 현재보다 미래 더 심각해질 이슈 Top5는 의료비 부담 증가,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0년 후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슈로 꼽혔던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 체계 부족'과 '물 부족' 문제는 올해에도 각각 2위, 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식수 및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국민이 미래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한 문제들은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3위)'이슈는 지난해 보다 16계단 상승했습니다. 백신 개발 등 사회 안전과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연구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순위권 밖이었던 '정리하고·부당하고·임금체불 증가'이슈는 올해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불안해진 경제 상황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며, 이를 체감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해 2위로 꼽혔던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는 12위로 하락하였습니다. 비대면 활동의 장기화로 다양한 ICT 교육 및 디지털 정보 보급이 이뤄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보다 10년 후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임팩트)이 커지는 Top20 사회문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부문에서는 정부 재정 적자 확대, 정리하고·부당하고·임금체불 증가, 취약계층 소득 불안 문제가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고용 불안정과 미래 소득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부문에서는 미래 먹거리 불안 및 식량생산 체계 부족과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는 물 부족(식수 공급 불균형 등) 외에도 가뭄·홍수로 인한 토지 황폐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보다 커지는 미래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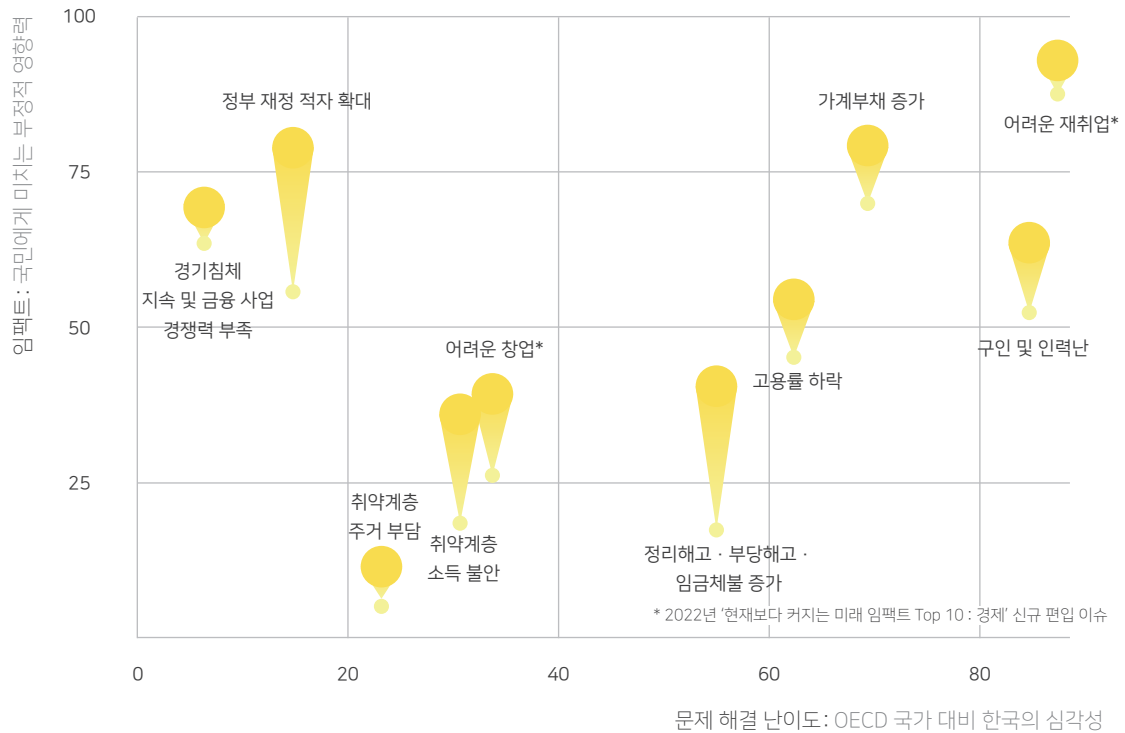
문제 해결 난이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임팩트: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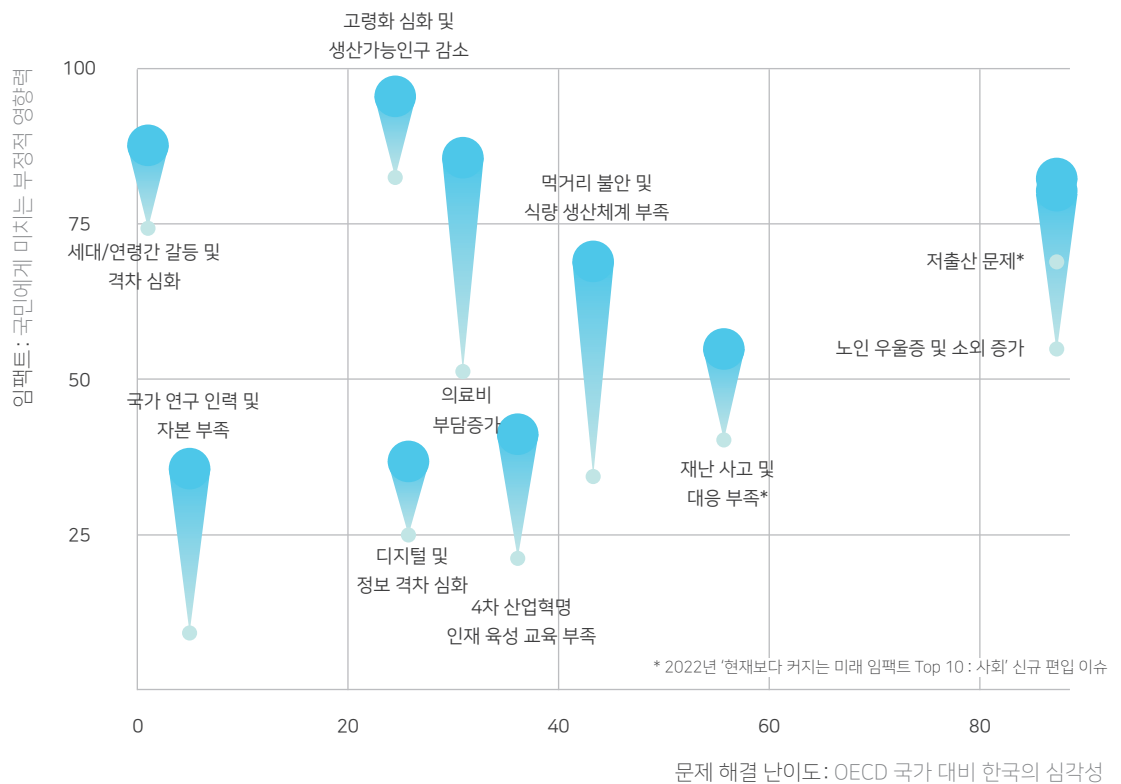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경제 이슈의 현재-미래 매트릭스: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TOP10 이슈 분석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사회 이슈의 현재-미래 매트릭스: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TOP10 이슈 분석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환경 이슈의 현재-미래 매트릭스: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TOP10 이슈 분석



Priority Issues

국민이 우선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경제 및 사회 문제 전반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으며, 특히 개개인의 환경오염·안전 위협 문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은 어떤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할까요.

국민에게 100조원이 있다면

국민 1,000명에게 100조원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자 어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얼마큼 편성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3년 연속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3년 평균 19.4%)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습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15.5%), 환경오염과 기후변화(10.2%), 삶의 질 저하(9.3%), 교육 불평등(8.8%)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예산(4위)이 지난해에 비해 4단계 순위가 상승하며, 국민이 편성한 예산이 무려 2조2,140억원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대외 의존도 문제를 체감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조1,690억원, 자연재해에서는 7,480억원 늘어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문제 해결 우선순위가 높아진 양상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비 안전위험 예산은 2,240억원, 사회통합 저해는 3,320억원 높아져 사회안전망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100조원의 예산을 배분할 권한이 있다면?

2020	2021	2022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9조 1,960억원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20조 2,190억원 ▲1조 230억원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8조 7,610억원 ▼1조 4,58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6조 6,91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5조 9,130억원 ▼7,78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3조 9,940억원 ▼1조 9,190억원
3 삶의 질 저하 /9조 6,390억원	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9조 9,850억원 ▲4,755억원	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11조 1,540억원 ▲1조 1,690억원
4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9조 5,095억원	4 삶의 질 저하 /9조 5,5850억원 ▼540억원	4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9조 2,040억원 ▲2조 2,140억원
5 안전 위협 /9조 405억원	5 교육 불평등 /8조 7,740억원 ▼710억원	5 안전 위협 /8조 6,900억원 ▼2,240억원
6 교육 불평등 /8조 8,450억원	6 안전 위협 /8조 4,660억원 ▼5,745억원	6 삶의 질 저하 /8조 7,390억원 ▼8,460억원
7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7조 930억원	7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7조 760억원 ▼120억원	7 교육 불평등 /8조 6,600억원 ▼1,140억원
8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7조 880억원	8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6조 990억원 ▼1,030억원	8 자연재해 /7조 4,940억원 ▲7,480억원
9 자연재해 /6조 7,535억원	9 자연재해 /6조 7,460억원 ▼75억원	9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6조 7,270억원 ▼3,490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6조 1,445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6조 2,450억원 ▲1,005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6조 5,770만원 ▲3,320억원

단위: 평균값

사회문제 해결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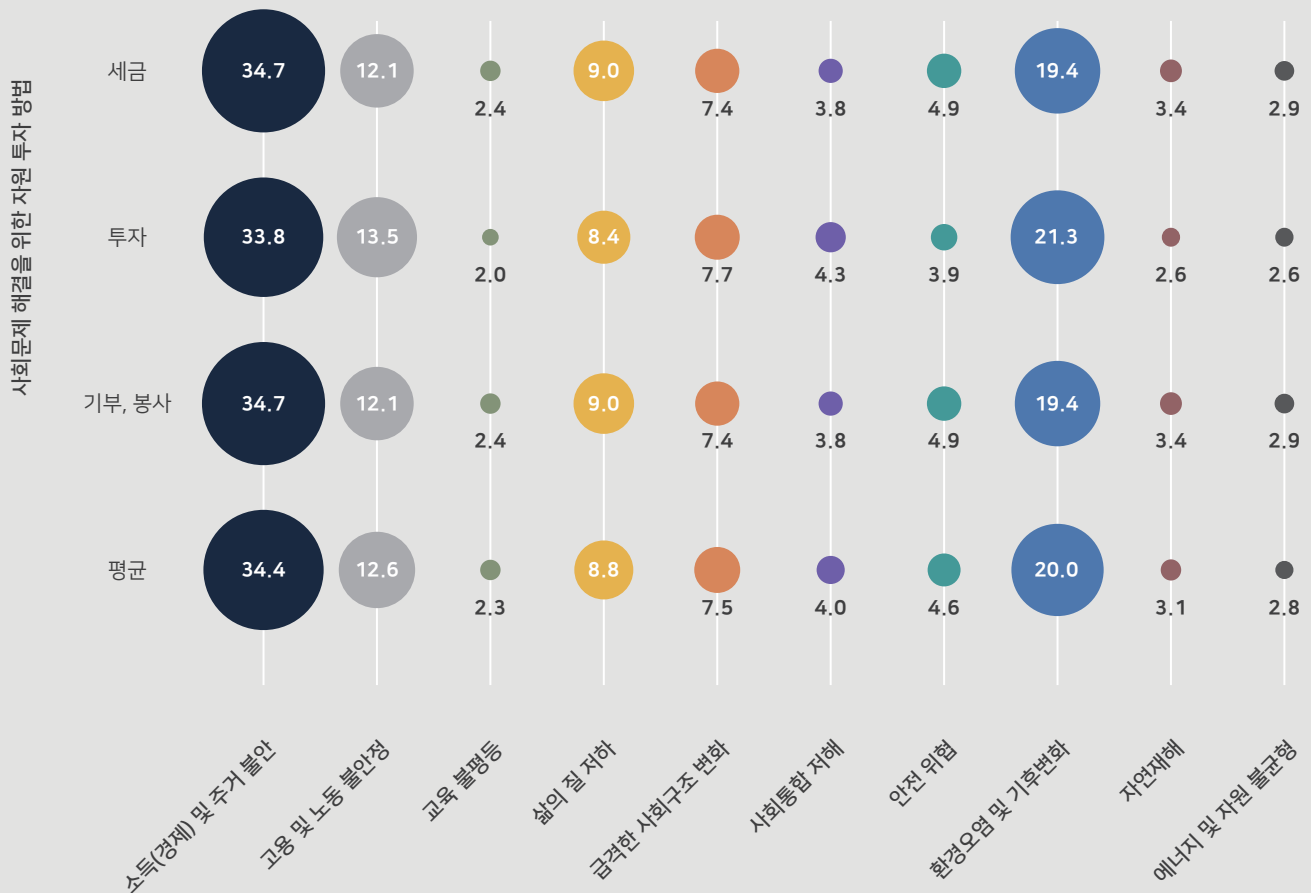
국민들은 세금, 투자, 기부 및 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 1,000 명에게 세금 추가 납부 의향,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투자할 의향, 기부 및 봉사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및 납부한 금액이 어떤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는지, 1순위 사회문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설문 결과 국민들은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을 1순위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를 2순위,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를 3 순위로 집중해야 할 문제로 꼽았습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더 높았던 2020-2021년과 달리,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높아져 2위로 올라선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투자를 통해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이 무려 10.9%p 증가했고, 세금과 기부 및 봉사를 통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1%p, 5.8%p 높아졌습니다.

[국민이 세금 · 투자 · 기부 · 봉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단위: %



Impact Action Plan 사회문제 해결 위한 행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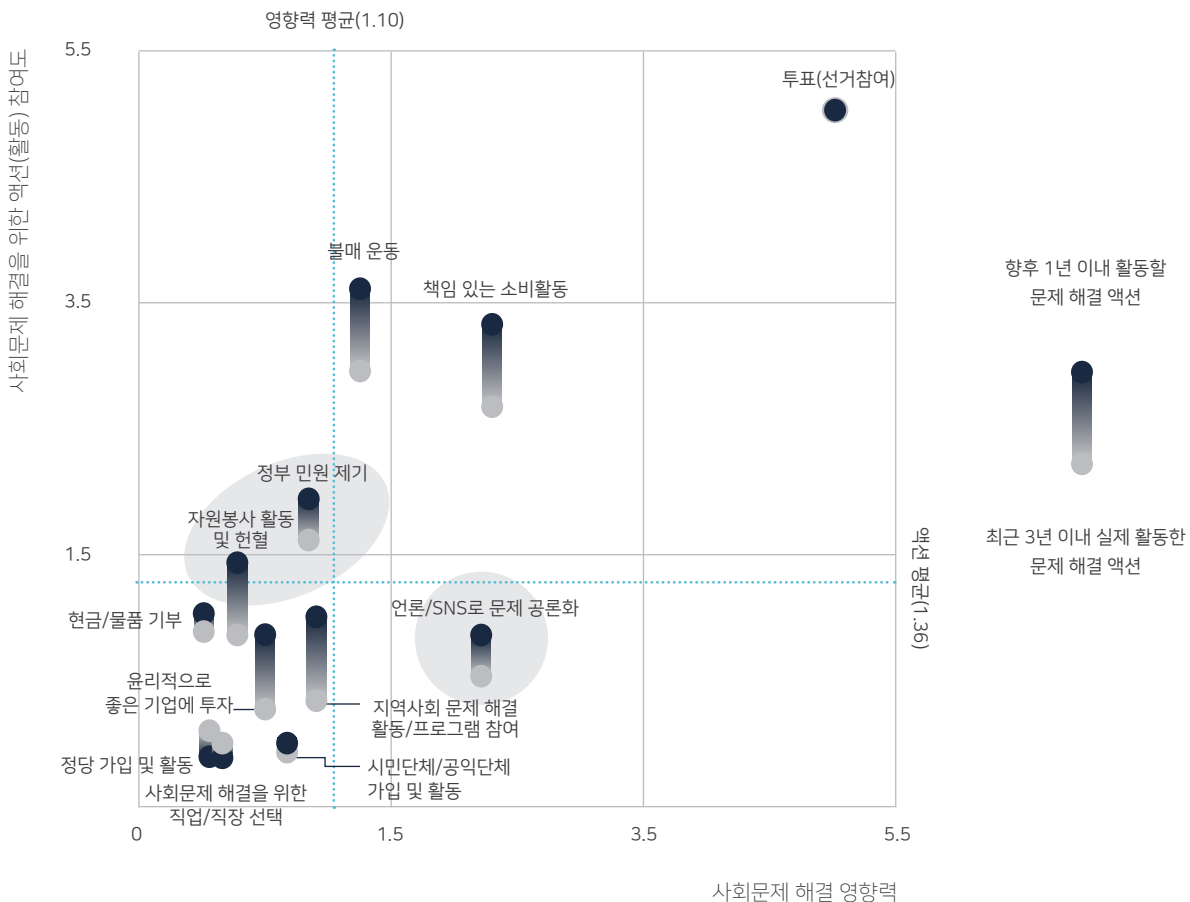
한국인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참여는 더딘 모습입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전혀 관심없다 0점~매우 관심있다 10점)'를 물었는데, 2020년 10점 만점에 6.92점에서 2021년에는 6.88점, 2022년에는 6.96점으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 실제 참여한 행동은 2020년 대비 ▼4.7%p, 2021년 대비 ▼3.7%p 하락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인식이 행동으로...문제 해결 영향력 높이려면

국민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동으로 '투표(선거 참여)'를 꼽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많이 참여했고, 향후 1년 이내 가장 많이 참여할 액션 역시 투표로 나타나, 선거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임있는 소비활동' 역시 문제 해결 영향력이 높은 만큼, 국민들의 실제 참여 경험과 향후 액션 의향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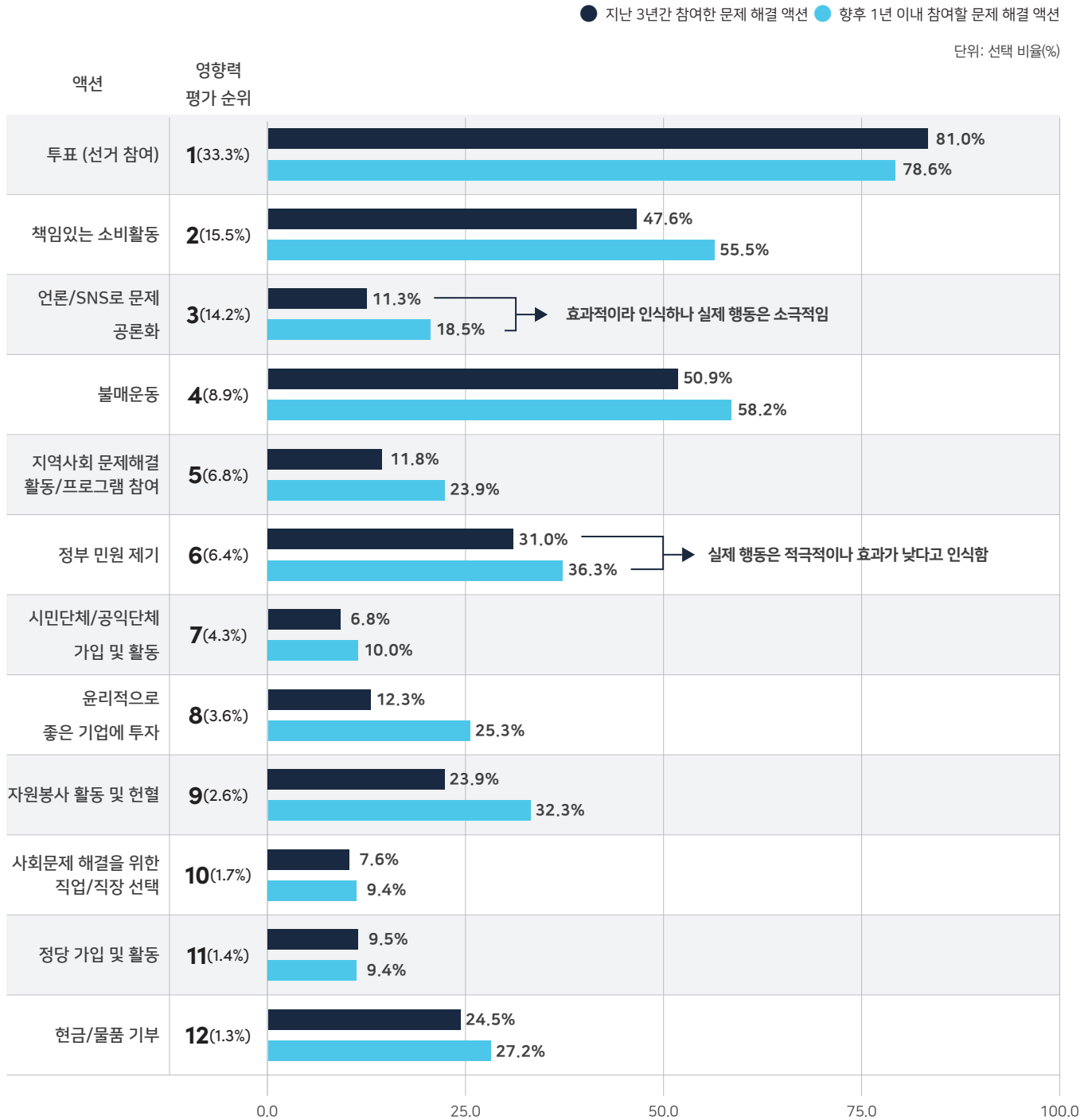
반면, '언론/SNS로 문제 공론화'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향후 1년 이내 활동할 의향도 평균 이하로 나타나, 사회문제를 공론화하는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정부 민원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은 많으나, 실제 체감하는 효과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이러한 문제 해결 사례가 공유 및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영향력, 액션의 정도는 응답자들의 선택 비중을 기준으로 도출되었으며,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난 '투표(선거참여)'를 5점(최대값)으로 고정하고 다른 액션들의 상대적 점수를 측정한 것임.

한편, 정당 가입 및 활동,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 시민단체/공인단체 가입 및 활동, 현금/물품 기부,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 활동은 국민들의 참여 수준과 문제 해결 영향력 모두 낮게 평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에 참여',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 활동은 현재보다 미래에 참여할 의향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가치소비와 책임투자 흐름에 대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 기반의 자원봉사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본·정보·네트워크 지원으로 참여 확산해야

개개인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행동)을 하지 않는 또는 하기 어려운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과반 이상이 '자본/비용이 부족해서(58.1%)'를 선택했습니다.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54.9%)', '사회문제를 해결할 지식이나 역량이 부족해서(53.7%)',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해서(51.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본, 정보, 역량, 네트워크 등 실제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 해결 위한 액션(행동)을 하지 않는(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선택 비율(%)



Pandemic to Endemic 코로나와 함께한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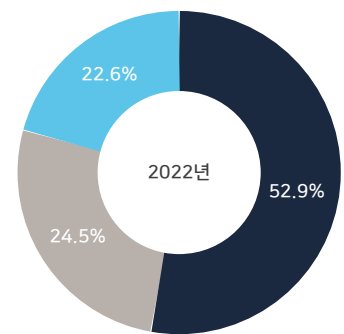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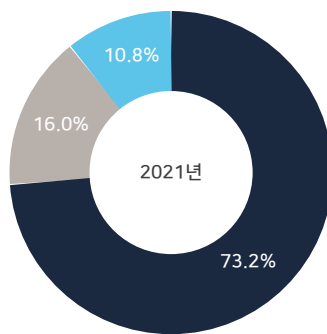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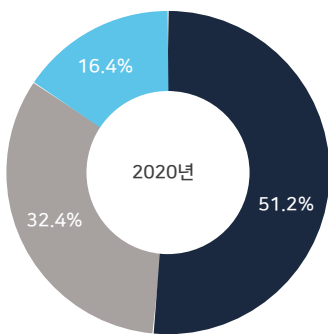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의 행복감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코로나 이후 삶의 회복으로

국민들은 코로나 전보다 불행해졌지만, 코로나가 장기화에 접어들 2021년에 비해서는 행복 수준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량(52.9%)이 여전히 더 불행해졌다고 답했지만, 이는 전년 대비 20.3%p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 전보다 행복해졌다는 응답은 22.6%로 코로나 원년인 2020년보다도 6.2%p 늘었습니다. 다만,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50.6%로 지난해(58.7%)와 유사했으며,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되는 2020년 보다 부정적 인식이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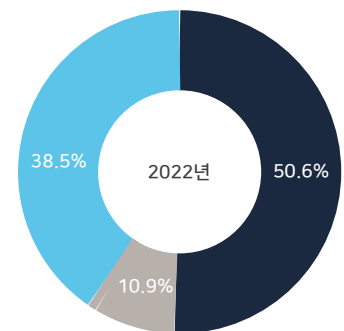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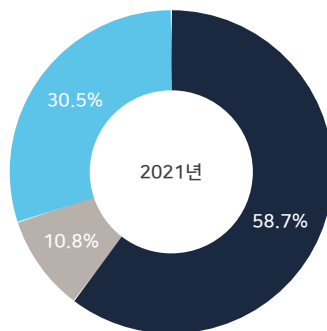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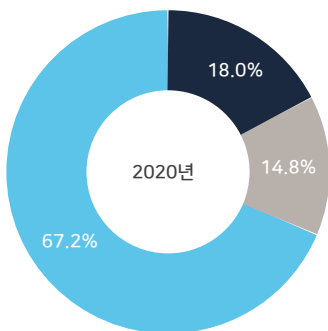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행복감 변화]

● 더 불행해졌다 ● 변화 없음 ● 더 행복해졌다



[코로나 이후 사회안전망 평가 변화]

● 부정적이다 ● 변화 없음 ●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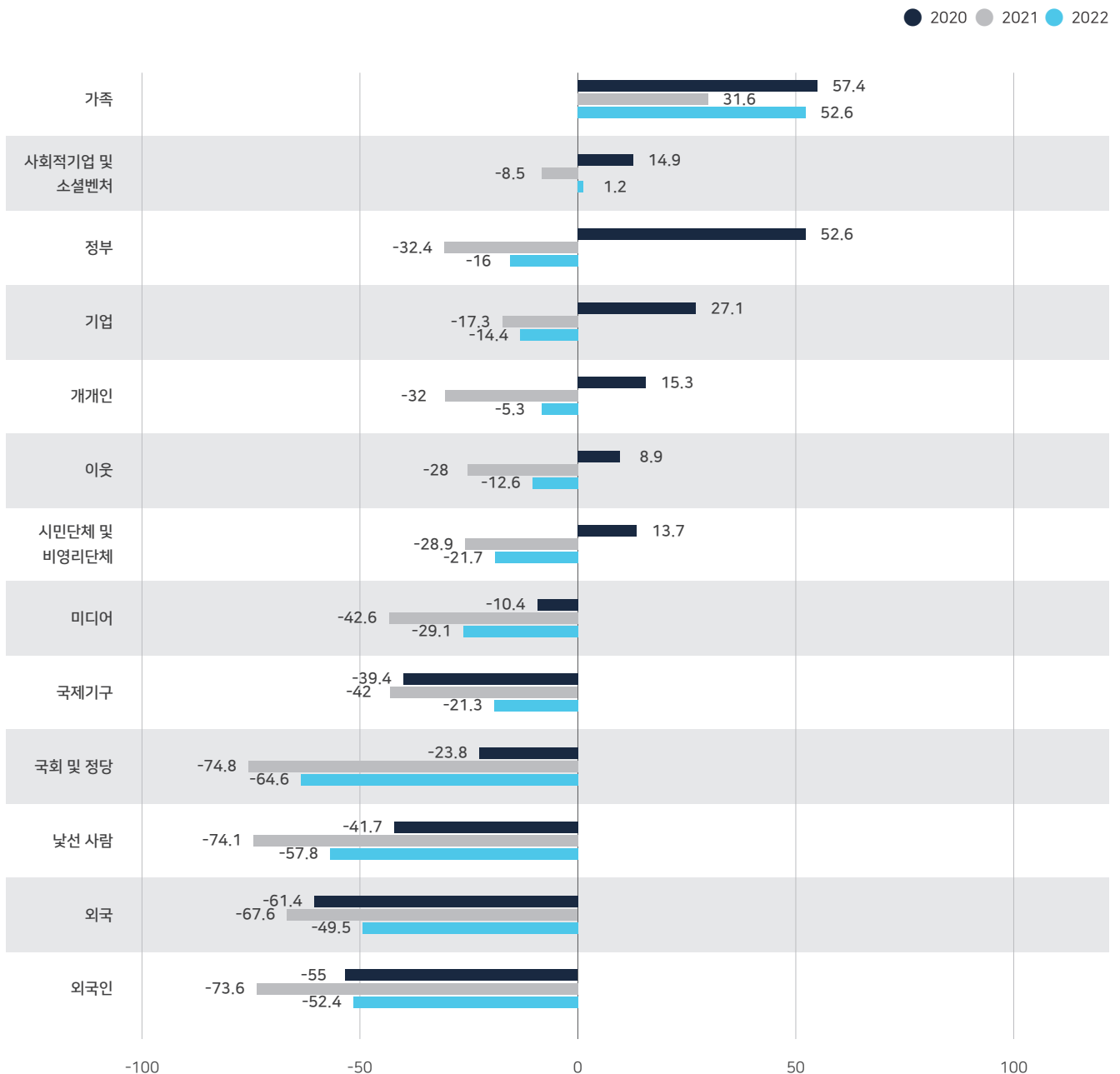


코로나19 3년, 신뢰도 회복 어려워

코로나 이후 국민들은 가족과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제외한 모든 사회주체들에 대해 더 불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해인 2020년 가족, 정부, 기업, 개개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 이웃 등에 대한 신뢰도가 긍정적이었으나, 이듬해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불신으로 돌아섰습니다. 올해는 개개인, 외국인 등을 포함해 모든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소폭 회복됐으나, 대부분이 부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크게 변화했습니다.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2020년 52.6이었던 정부 신뢰도는 2년간 -68.6나 떨어져 올해 -16에 그쳤습니다. 이어 기업(-41.5), 국회 및 정당(-40.8),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35.4)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반면, 국제기구(18.1), 외국(11.9), 외국인(2.6)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됐는데, 세계적인 확산세가 잦아들며 점차 불안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주체에 대한 신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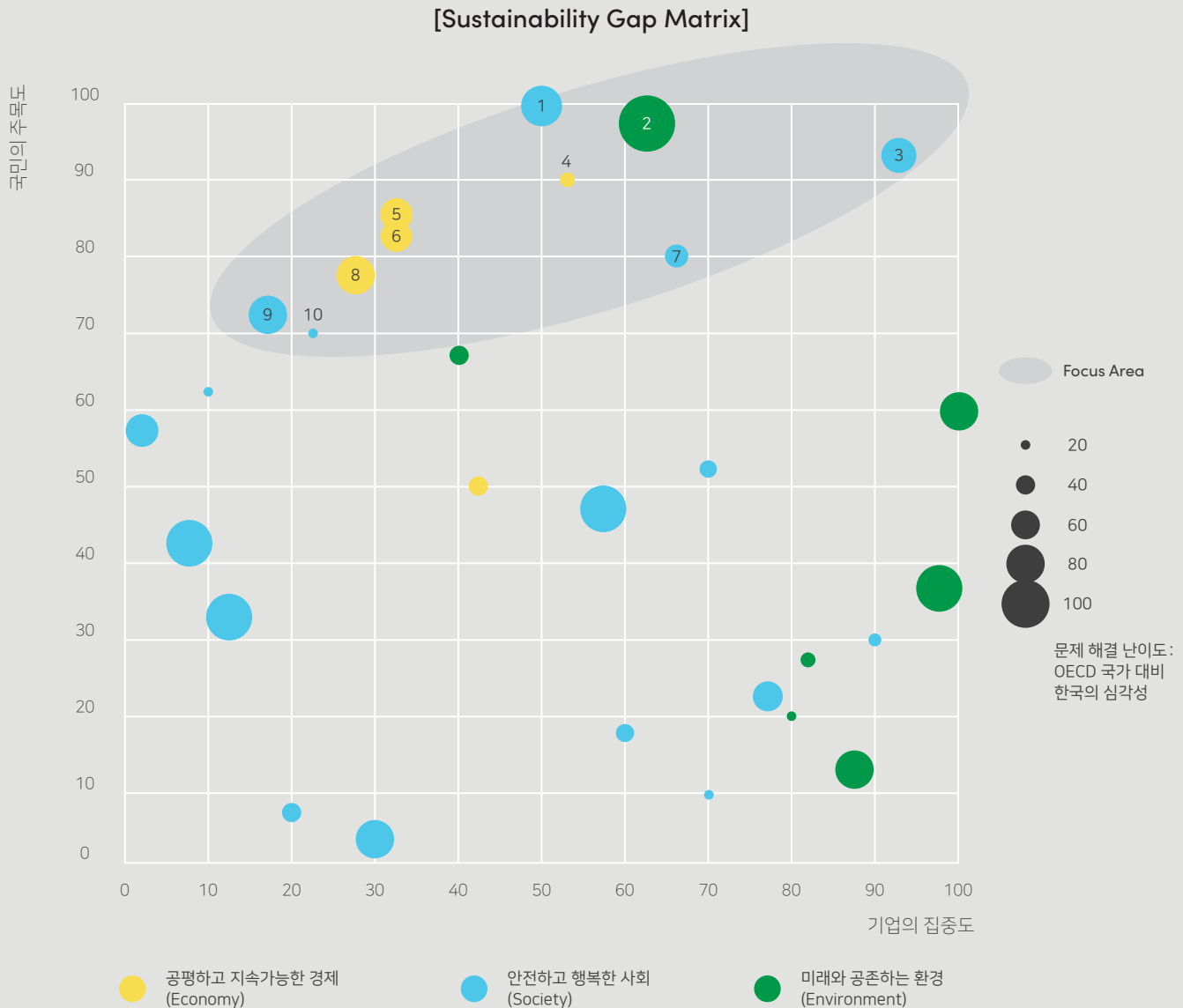
*신뢰도 변화는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불신하게 되었다(-)는 응답의 비율 차이를 통해 '신뢰 변화 지수'를 도출한 결과이다. 신뢰도가 높아진 주체는 (+)로, 신뢰도가 낮아진 주체는 (-)로 표기된다.

Sustainable Business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2022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 중에서,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¹을 도출하고, 국민 1,000명에게 국내 대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를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을 기업이 해소하고, 윤리적이며 안전한 사회·환경을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te: Y축 '국민의 주목도'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이슈 Top 30' 중에서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X축 '기업의 집중도'는 국내 주요 산업군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이슈 Top 30' 문제별 집중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1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중대 이슈 Top30은 '2022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 중에서 국내 주요 산업군의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취합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대 이슈를 연계 및 통합 분석하여 도출함. 분석 대상 기업은 GICS 산업군별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상위기업 중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포함된다.

윤리적이고 안전을 위한 기업

올해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이슈 Top30에 신규로 포함된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문제가 국민들이 기업에 가장 바라고 우려하는 Top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갑질기업)' 문제도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9위로 국민의 주목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연이은 불공정 거래와 횡령 이슈, 건설 현장 및 붕괴 사고를 접하면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안전 예방 역량에 주목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침체를 이기는 혁신과 사람 중심 경영

국민들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통해 고용률 하락 문제와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결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5~20위권에 머물렀던 해당 문제들이 모두 국민이 기업에 바라는 Top10 이슈에 포함되면서, 사람을 위한 혁신 경영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4위에 올랐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등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외에는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분야 이슈가 Top10 중 무려 40%(2021년은 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과제의 확장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기업에 가장 큰 주목을 요구하는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대기업 불공정 거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는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문제 해결 난이도)이 높은 이슈에 해당합니다. 정부·국제기구·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통해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임팩트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이 바라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기업의 집중도 Gap]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순위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1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100.0	50.0	50.0	50
2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6.7	63.3	33.3	92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93.3	93.3	0.0	85
4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90.0	53.3	36.7	15
5	고용률 하락	86.7	33.3	53.3	61
6	청년 일자리 부족	83.3	33.3	50.0	65
7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80.0	66.7	13.3	35
8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76.7	26.7	50.0	82
9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73.3	16.7	56.7	80
10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70.0	23.3	46.7	8

3. Process 연구방법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1) 사회 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2)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3) 일반국민 설문조사 4) 데이터&사회문제 우선순위 분석 5)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등 단계별 분석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1. Issue Taxonomy & Analysis 사회 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2. Material Sustainability Issues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3. Public Survey 일반 국민 설문조사

4. Data Analysis 데이터 및 사회문제 분석

5. Implication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1) Issue Taxonomy & Analysis (사회 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본 연구는 ‘2022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을 선정하여 사회문제를 재정의하고, 국내의 현실과 인식 수준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은 UN SDGs, K-SDGs&지속가능발전계획, WEF Global Risk, GRI, 110대 국정과제, 한국 사회지표 등 국내외 사회문제 관련 기준과 자료들을 통합 분석하여 확정된 138개 이슈 Pool 중, 각 이슈별 검색식을 기준으로 분석한 미디어 노출 빈도 순위를 통해 매년 100개 이슈가 최종 도출됩니다.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 교수)가 2017년 국내외 사회문제 지표 및 기준을 분석하여 개발한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트리플라잇의 미디어 분석 및 사회문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바탕으로 100개 이슈와 분류체계의 매칭을 통해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격차’의 정도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식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대와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진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3년간 달라진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0대 테마, 100개 이슈로 구성됩니다. 올해 ‘2022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에 신규로 편입된 이슈*는 어려운 재취업,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심각한 게임중독 증가, 산모 및 신생아 보호 부족,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문제입니다.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

3대 목표	사회문제 10대 테마	2022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가계부채 증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구인 및 인력난, 청년 일자리 부족,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어려운 재취업, 고용률 하락,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일자리 정책 문제,*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교육 불평등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진로 교육 및 직업교육 부족, 양질의 교육 부족,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고등교육의 질 저하,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삶의 질 저하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심각한 게임중독 증가*산모 및 신생아 보호 부족(출생 관련 권리 보장 부족), 불임 및 난임 증가, 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저출산 문제, 도시 인구 증가 및 농·어촌 이탈 현상 확대(도농 불균형),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발전 불균형,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및 시설퇴소 아동 보호 부족,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사회통합 저해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성별격차 및 성차별,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만연한 특권과 편법, 노사갈등 심화
	안전 위협	아동학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학교폭력,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가정폭력 증가,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지구 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미세먼지 증가,*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자연재해	폭염·한파 증가, 가뭄·홍수 증가, 태풍 증가, 폭설과 폭우 증가,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화산폭발 위험 증가, 지진과 쓰나미 증가, 산사태 증가, 대형산불 증가,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물순환 개선 및 재이용 부족

2) Material Sustainability Issues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국내 산업군별 주요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Pool을 취합하고, 이를 '2022 대한민국 사회이슈 100'와 연계하여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집중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 1000명에게 '국내 대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와 중대 이슈별 기업 평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문제와 국민이 바라는 사회문제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였습니다.

3) Public Survey (일반 국민 설문조사)

현재와 10년 후 미래의 삶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국민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 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응답

* 설문지 및 응답결과 데이터는 SV hub 웹사이트(svhub.c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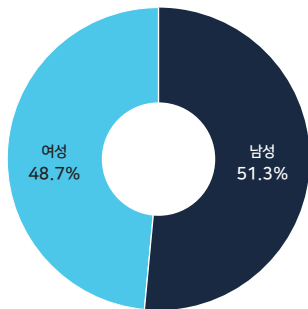
◎ 조사 기간 : 2022년 5월 2일 ~ 5월 7일

◎ 표본 오차: $\pm 3.10\%$ (95%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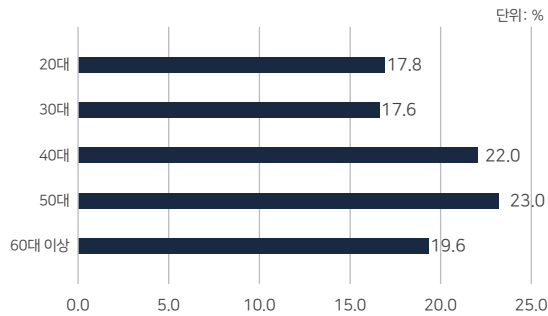
*표집 상의 비율 할당 여부에 따라 단순임의추출 또는 층화 임의추출 방식 활용)

◎ 응답자 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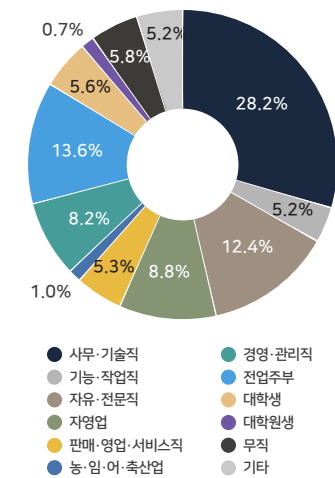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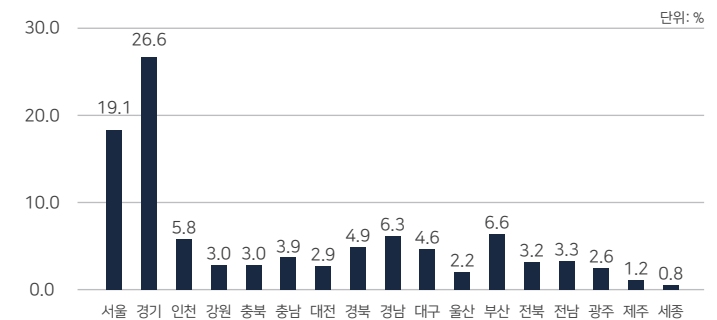
연령



직업



지역



4) Data Analysis (데이터 및 사회문제 분석)

인식조사와 함께 국가별 문제 해결 수준도 비교해봤습니다.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EF(세계경제포럼), World Bank(세계은행), TI(국제투명성기구) 등 OECD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이슈별 한국의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매칭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다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도출한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험과 기회요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 방향 등을 연계하여 짚어봤습니다.

5) Implication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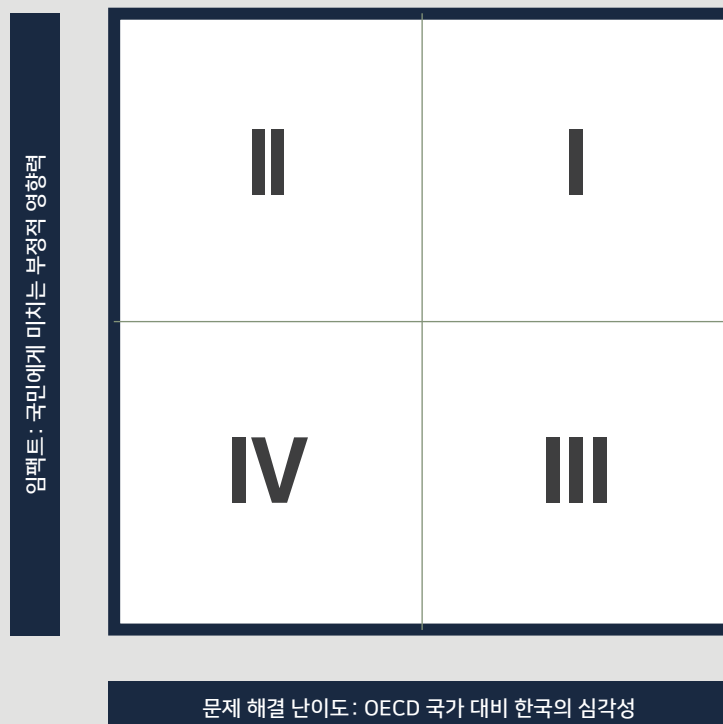
미디어 분석, 기업의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도출, 일반 국민 설문조사, OECD 38개국 대비 한국 순위 등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자체 개발한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난이도(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삼각성)와 임팩트(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정도를 4사분면으로 구분(Do First, Do Plan, Do Monitor, Delegate)하여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을 제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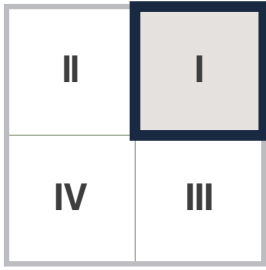
Framework 문제의 발견과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 수준을 분석하는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을수록 모든 주체의 협력과 자원 및 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수준이 낮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실험과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 Impact Issues Priority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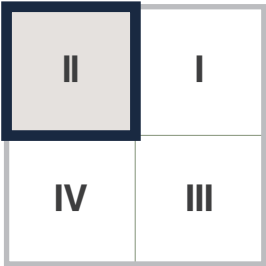




1. Do First

-문제 해결 난이도와 영향력이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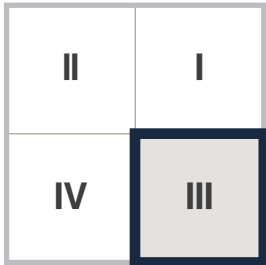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협력과 자원·역량 집중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2. Do Plan

-문제 영향력이 높고 난이도는 낮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비교적 해결이 쉬우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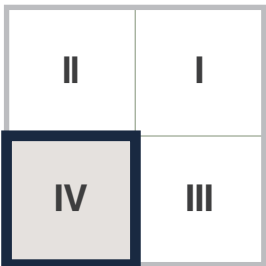
-역량·자원 계획을 통해 자원 낭비를 경계하고,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3. Do Monitor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해결이 어렵고 관심도 적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과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인 연구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4. Delegate

-문제 해결 난이도와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관심이 적고 해결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자원의 적절하고 장기적인 배분이 중요합니다.

-시민사회 및 개개인의 다양한 실험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Y축 : 임팩트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임팩트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현재와 미래 사회문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100점 만점으로 도출한 값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응답자가 선택하는 사회문제는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의 3대 목표, 10대 사회문제 테마, 100대 이슈를 기반으로 제시됐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수록, y축값이 높아진다.

▶p.38 :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현재와 미래 이슈

X축 : 문제 해결 난이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문제 해결 난이도는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도출한 값이다.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8개국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역량이 부족하므로, 문제 해결 난이도는 높아지며 X축값이 커진다.

▶p.40 :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Chapter 2.

Impact Issues Analysis

2022 사회문제 분석

Public Social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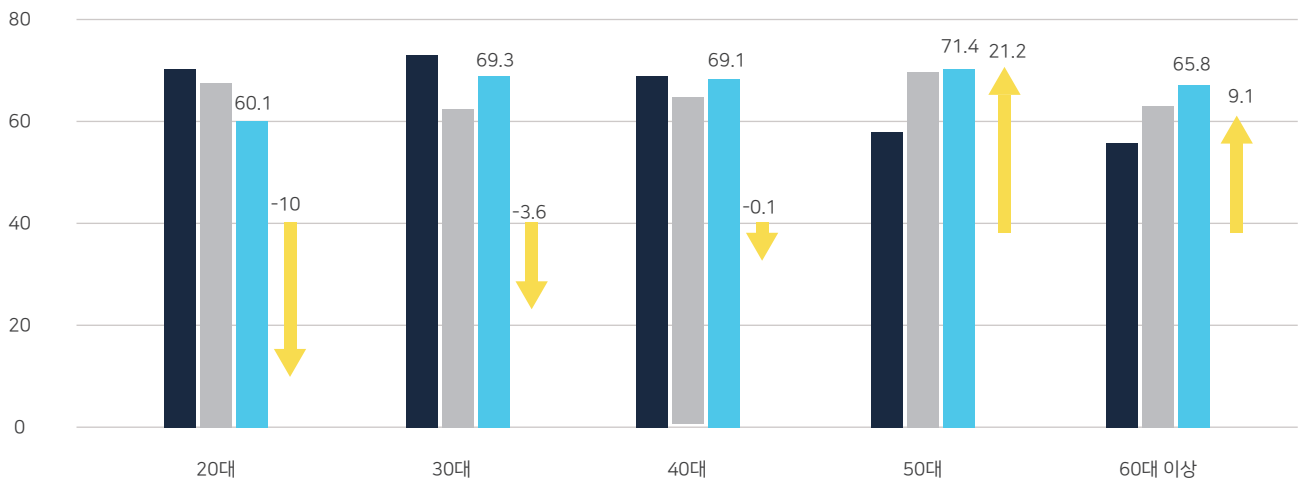
Social Awareness 사회인식 조사

국민들은 나의 삶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 결과, 20대의 행복감이 전 연령 대비 가장 낮았으며, 2020년에 비해 가장 큰 폭(10%p▼)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대비 행복감이 감소한 연령대는 20~40대, 증가한 연령대는 50~60대 이상으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 2020 ● 2021 ● 2022 ● 2022-2020 증감률

단위 : 행복감(%), 증감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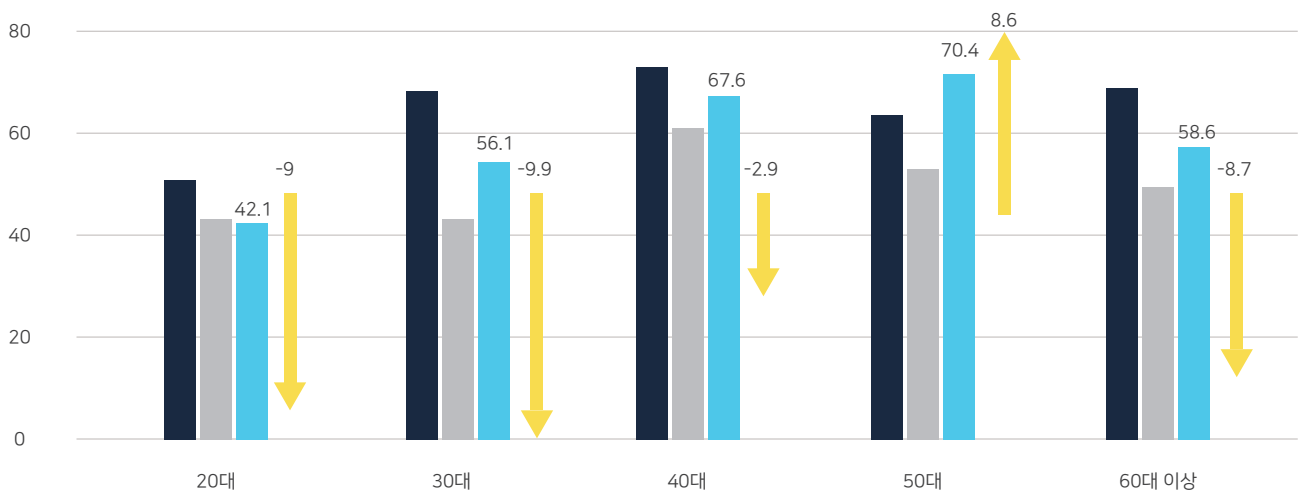


지난 3년 연속 우리 사회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였으며, 올해도 과반 이상이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0년에 비해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부정적으로 변한 연령대는 30대였으며, 10.9%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40~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사회다]

● 2020 ● 2021 ● 2022 ● 2022-2020 증감률

단위 : 행복감(%), 증감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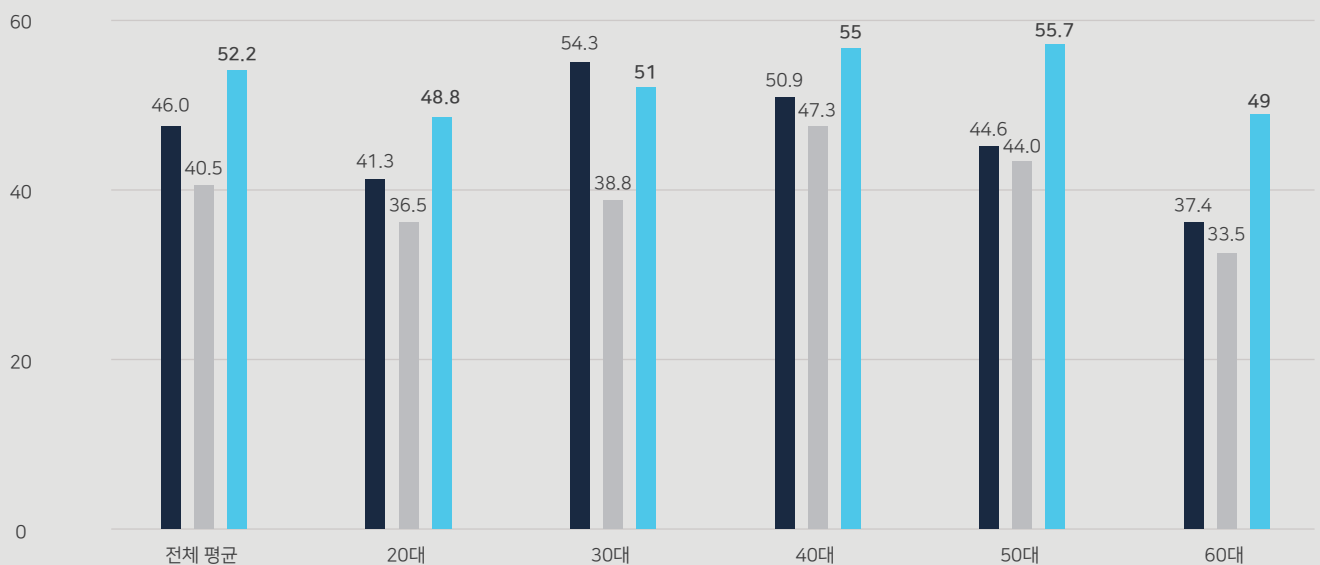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지난 3년 중 올해 처음으로 '5년 전보다 국가 경제 상황이 좋아졌는가'에 동의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대(12.3%p▲), 30대(12.2%p▲), 40대(7.7%p▲), 50대(11.7%p▲), 60대(15.5%p▲) 등 전 연령대에 걸쳐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를 겪어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가정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2020년 대비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3.3%p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대부분 연령대가 가정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60대의 경우 지난해는 물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상황은 좋아졌다]

● 2020 ● 2021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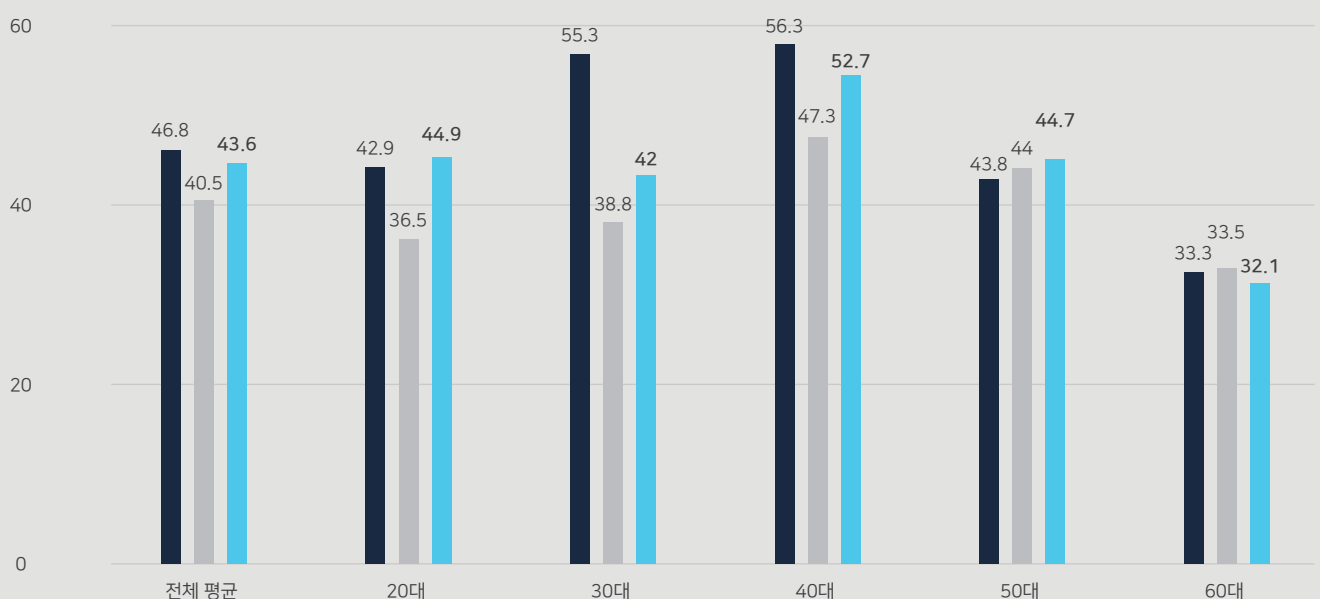
단위 :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5년 전에 비해 나의 가정경제 상황은 좋아졌다]

● 2020 ● 2021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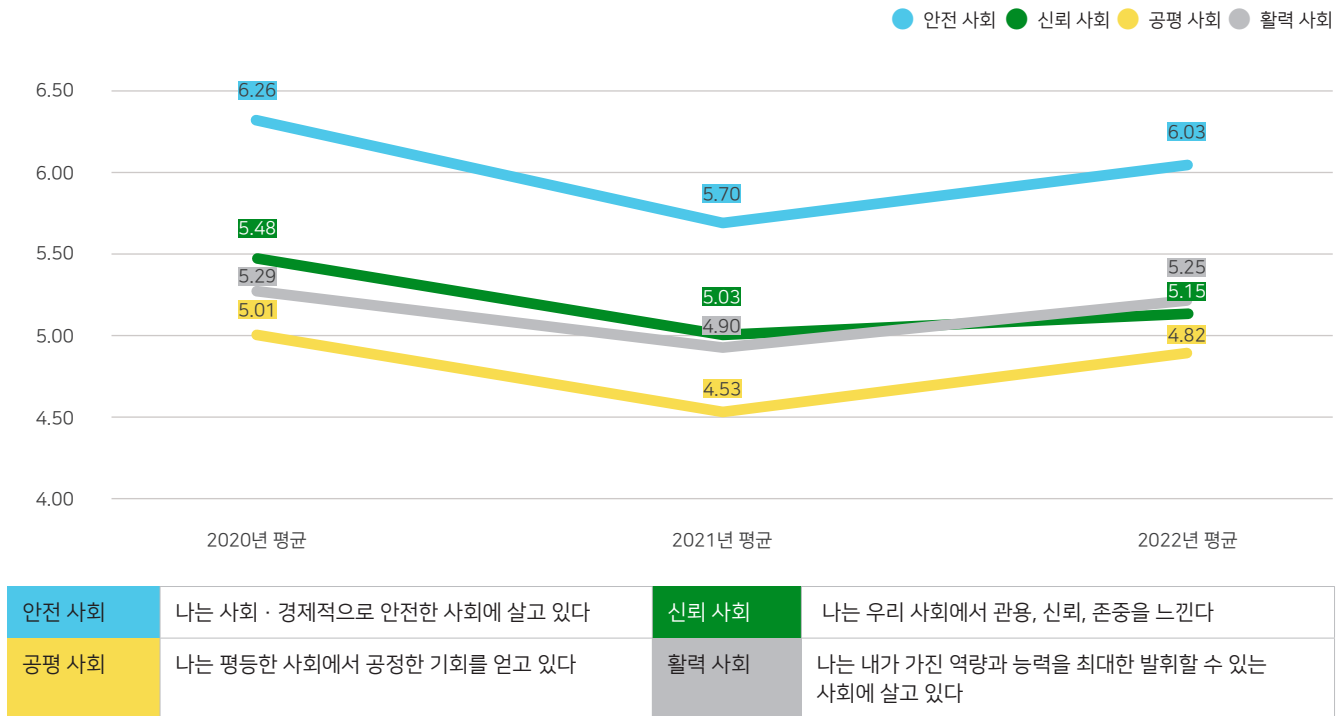
단위 :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국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안전성(Security)과 응집성(Cohesion), 포용성(Inclusion), 역능성(Empowerment) 등 4개의 지표를 ‘살기 좋은 사회’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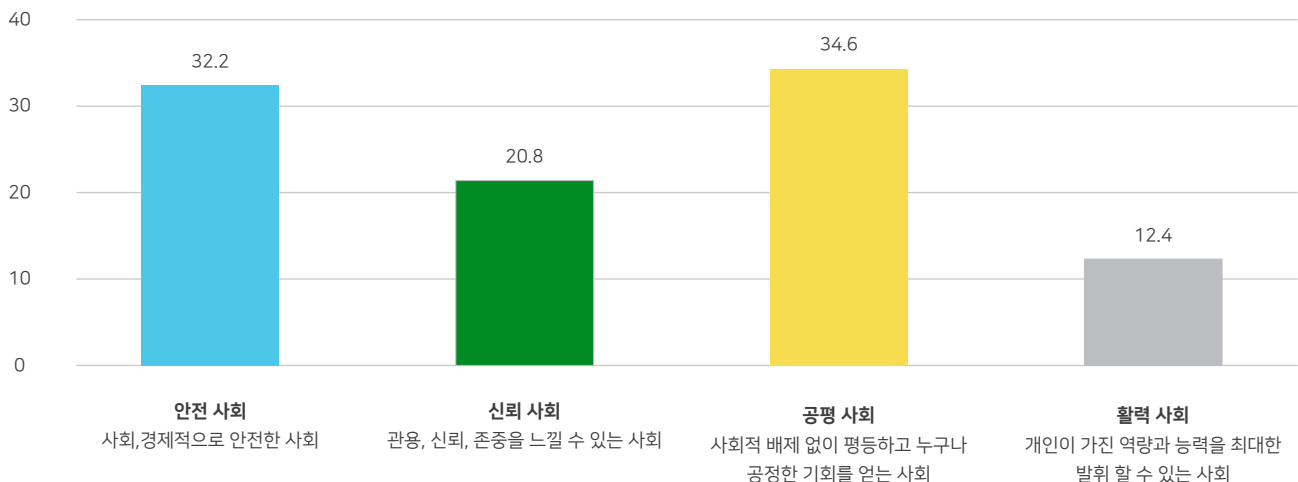
설문 분석 결과 ‘살기 좋은 사회’의 4가지 지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21년에 비해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다르게 ‘활력 사회’에 대한 점수가 ‘신뢰 사회’에 대한 점수를 앞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3년 연속 ‘안전 사회’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공평 사회’에 대한 점수가 3년 연속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원해

국민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는 ‘사회적 배제 없이 평등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는 사회(34.6%)’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안전한 사회(32.2%)’, ‘관용, 신뢰, 존중을 느낄 수 있는 사회(20.8%)’, 개인이 가진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12.4%)’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단위 : 선택 비율(%)



2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C. Wilker(2005), Yang&Holzer(2006), Peters(2002),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재열 외(2015)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 응답한 국민 1,000명에게 ‘안전 사회, 신뢰 사회, 공평 사회, ‘활력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느낀 실제 경험을 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식 응답을 구성하는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한 사회, 이럴 때 아니라고 느꼈다(키워드 분석 Top 20)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집값 폭등 인한 부채 및 노후 불안’ 등 경제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20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성범죄가 사이버 범죄가 불안하다”, “혼자 사는 집에 모르는 사람이 기웃거릴 때 겁이 난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부모님이 당하셨을 때” 등 범죄와 관련된 경험도 많았습니다.



#신뢰 사회, 이럴 때 아니라고 느꼈다(키워드 분석 Top 20)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치권의 대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한 상반된 반응 등 언론에 보도되는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가 아니라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노키즈존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정치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다”, “서로에 대한 관용, 신뢰, 존중이 없어서 여성과 남성, 장애와 비장애, 연령별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평한 사회, 이럴 때 아니라고 느꼈다(키워드 분석 Top 20)

국민들의 상당수가 취업, 면접 등 직장 생활과 관련해 ‘불평등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로는 ‘남녀 임금 차이’, ‘학벌에 의한 채용 탈락’, ‘회사 내 성차별’, ‘학력 차별’, ‘승진 기회에서 밀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취업 기회 찾기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활력 사회, 이럴 때 아니라고 느꼈다(키워드 분석 Top 20)

우리 사회는 일자리, 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로는 ‘코로나로 취업문이 좁아짐’,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나이에 의한 재취업 제한’, ‘직장 내 파벌 문제’, ‘인맥에 의한 채용’ 등이 있었습니다.



Present & Future Issue : 현재와 미래 이슈

국민 1000명에게 현재 나의 삶과 10년 후 미래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미치는 이슈가 무엇인지 사회문제 10대 테마별로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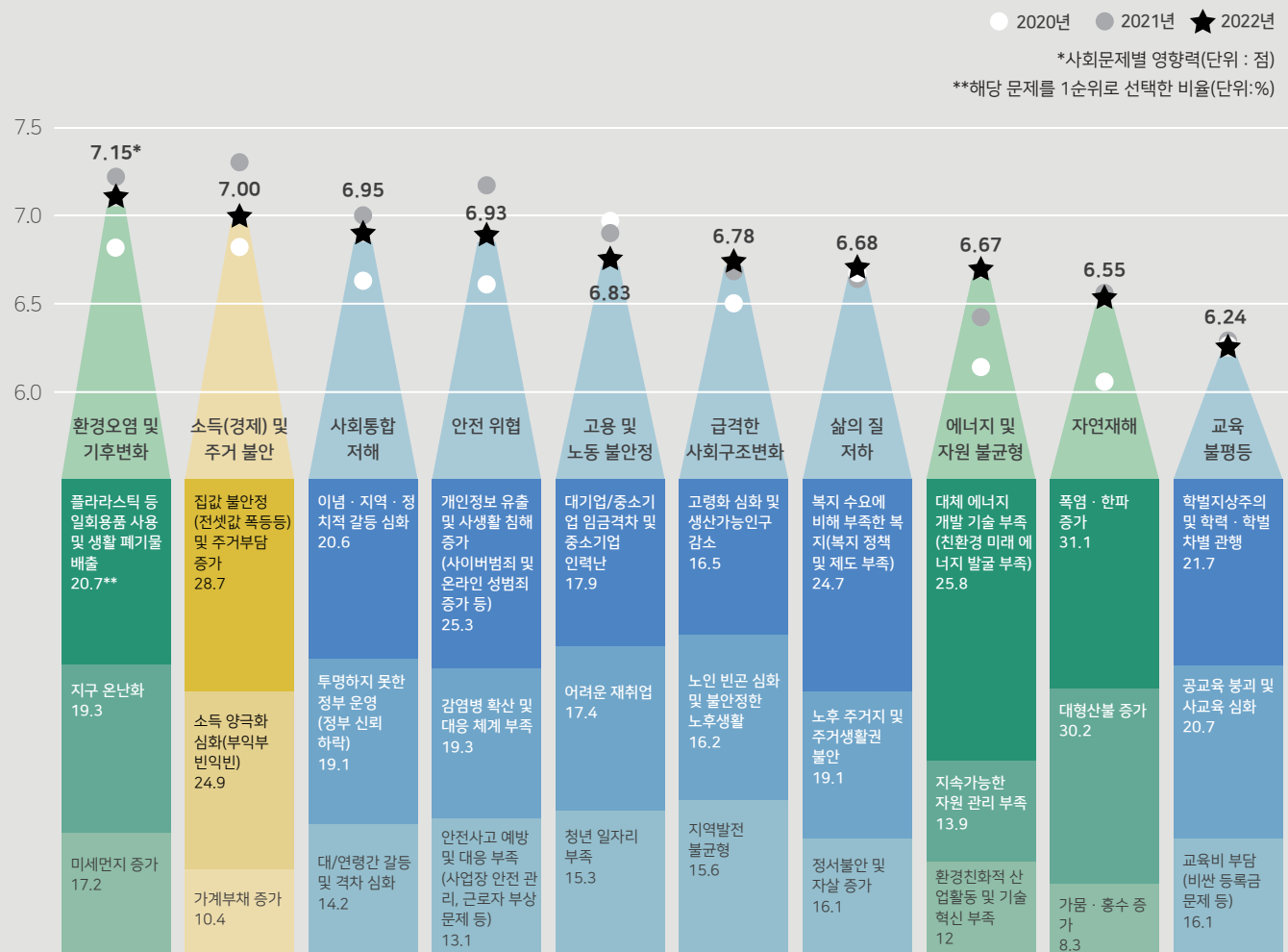
현재 나의 삶을 힘겹게 하는 주요 이슈는?

현재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중에서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20.7%)'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테마의 1순위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미세먼지 증가(▼11%p)'는 3위로, 지난해 3위였던 '지구온난화(▲2.7%p)'는 2위로 순위변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테마에서는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28.7%)를 지난해에 이어 1순위 이슈로 응답했으며, 사회통합 저해 테마에서는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20.6%), 안전 위협 테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25.3%)가 지난해 1위였던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을 제치고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 저하 테마에서는 20대가 체감하는 이슈가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20대는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32%)를 1순위 이슈로 꼽았지만, 다른 연령대는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를 1순위로 응답했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테마에서도 20대 응답자는 지역발전 불균형(22.5%)을 1순위로, 50~60대 이상 응답자는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22.6%)을 1순위로 선택하며 세대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테마별 TO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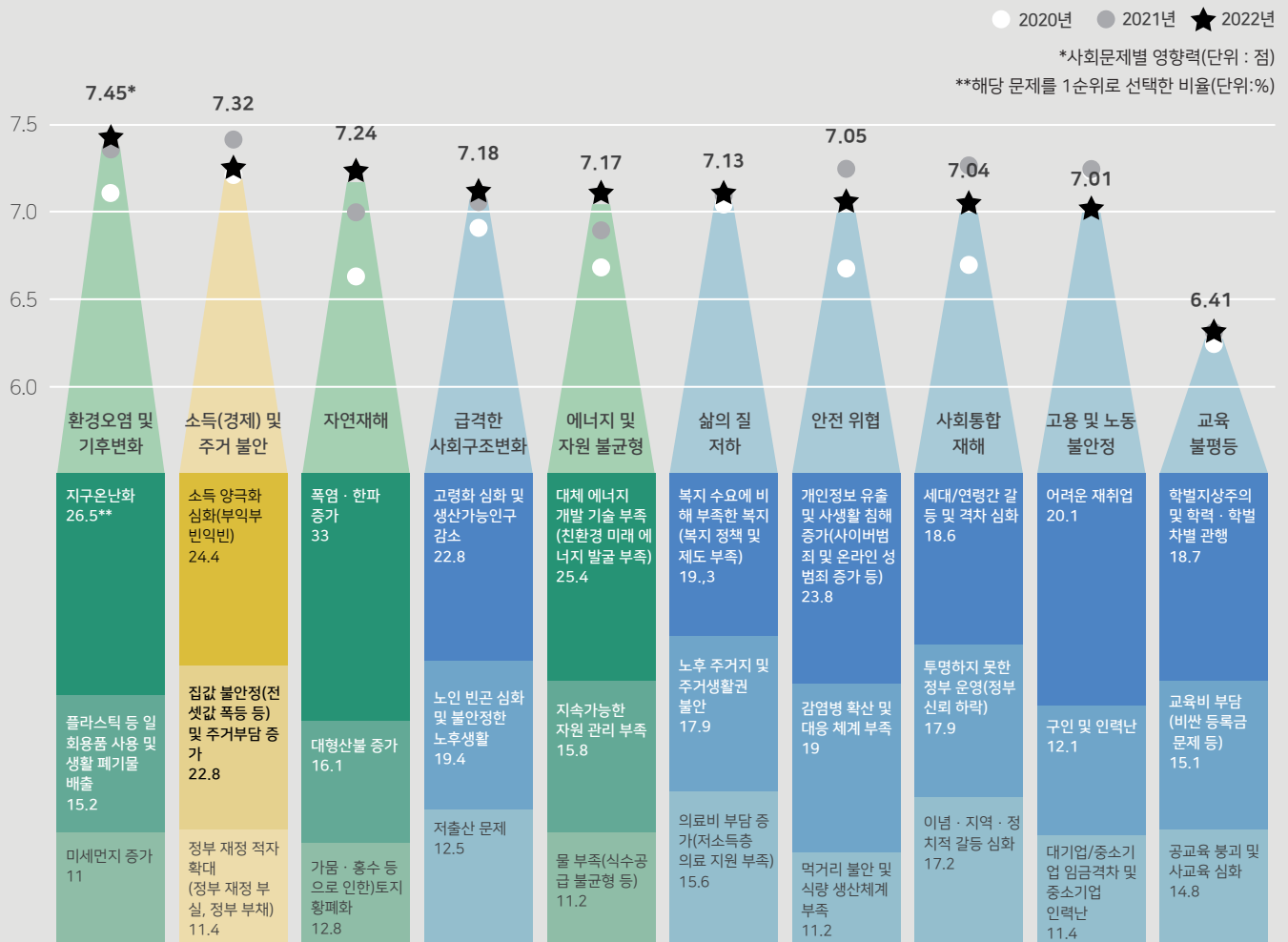
10년 후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폭염·한파 증가,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등 7개 이슈는 물론 10년 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순위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교육 불평등 테마에서 20대와 50대는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10년 후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순위 이슈로 꼽았지만, 30~40대는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사회통합 저해 테마에서는 20대가 유일하게 성별격차 및 성차별(21.3%)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지구 온난화(현재 19.3% ▶미래 26.5%,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테마),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재 16.5% ▶미래 22.8%,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테마),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현재 14.2% ▶미래 18.6%, 사회통합 저해 테마) 문제가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테마별 TOP3)]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Korea Problem & Difficulty Level

문제 해결 난이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해결 수준이 가장 낮은 문제는 정서불안 및 우울증, 저출산, 성별격차 및 성차별, 미세먼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과 비정규직 증가(차별) 문제의 국내 심각성이 OECD 국가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갈등 해소, 기후위기와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 수준: 문제 해결 난이도]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2	미세먼지 증가 92	성별격차 및 성차별 92	저출산 문제 92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92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92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91
비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차별) 90	해수면 상승 89	어려운 재취업 87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87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6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85	구인 및 인력난 84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83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갑질 기업) 82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81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80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78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78	장애인 등 사회취약자 차별 75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75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75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소상공인 생존 문제 67	지역발전 불균형 66	청년 일자리 부족 65	노사갈등 심화 64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63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62	심각한 게임중독 증가 74	교육비 부담 (비싼 등록금 문제 등) 60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53	일자리 정책 문제 52	만연한 특권과 편법 51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50
가뭄 · 홍수 증가 49	아동학대 73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59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47	화학물질 · 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41	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40	불임 및 난임 증가 39
지진과 쓰나미 증가 38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71	물 순환개선 및 재이용 부족 58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45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36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30	물 부족 (식수공급 불균형 등) 29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28	고등교육의 질 저하 71	이념 · 지역 · 정치적 갈등 심화 56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45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35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26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25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23	태풍 증가 70	정리하고 · 부당하고 · 임금체불 증가 56	양질의 교육 부족 44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34	취약계층 중·고소득층 인·출입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23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23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22	가계부채 증가 69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55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43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33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21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및 인식 부족 17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 지속 및 임금·연봉 상승 둔화 16	진로 교육 및 직업교육 부족 68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54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41	지구 온난화 32	산모 및 산생아 보호 부족(출생 관련 권리 보장 부족) 19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19
정부는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17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31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17

*Note: '2022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대 이슈 중에서, OECD 주요국 대비 심각성 순위를 '문제 해결 난이도(100점 만점)'로 환산해 도출한 값이다. 심각성 순위는 각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최신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슈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한 OECD 국가수는 차이가 있으며,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난이도가 동일하거나 데이터가 없는 이슈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고점을 92점으로 표시하였다.

Issue Tracking

이슈별 한국의 OECD 주요 순위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은 어떠할까요.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2020-2022년 OECD 국가별 데이터가 신규 업데이트된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심각성을 들여다봤습니다.

[2022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심각성*]

단위 : 난이도(점)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2020-2022년 OECD 주요 국가별 데이터가 신규 업데이트된 이슈를 도출하여, 한국의 심각성(문제 해결 난이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가계부채 증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값 급등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로, OECD 30개국 중 25위였습니다(2020년 기준). 이는 전년 대비 12.5%p나 높아진 수치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한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와 호주뿐입니다. 한편, 대기업 불공정 거래(34위/37개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27위/33개국) 문제도 OECD 대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26.1%)은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2020년 기준). 이는 OECD 평균(11.4%)의 2배가 넘는 수치로, 33위 국가인 콜롬비아(27.3%)와의 격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으며(29위/31개국), 취업이 어려워 경제활동 참여율도 38개국 중 36위(2020년 기준)로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코로나19로 1년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육 격차도 심화돼 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으로, 20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2018년 기준, 영유아~대학교 학사까지).

[삶의 질 저하]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부족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GDP 대비 사회적 지출(Social benefits)을 보면, 한국은 6.42%로 OECD 35개국 중 32위에 올랐습니다(2020년 기준). 이는 정부가 질병, 실업, 교육 등 복지를 저해하는 상황에 처한 가정에 현금 또는 연금 등으로 지원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국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37위/37개국, 2019년 기준),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22위/22개국, 2018년 기준)도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저출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2019년 기준).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저출산 기조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명으로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 노인 빈곤 심화(35위/38개국),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보육 서비스 부족(34위/38개국) 등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저해] 성별 격차 및 성차별

성별 격차와 장애인 차별, 노사갈등 등 사회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Gender Pay Gap)는 OECD 19개국 중 19위(2020년 기준)로, 통계가 생긴 1992년도 이후 30년째 최하위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로 '여성 경력단절', '고용 상 성차별', '여성 폭력' 등을 꼽았습니다. 이밖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34위/38개국), 노사갈등 심화(14위/18개국) 등 사회통합을 막는 문제들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안전 위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OECD 16개국의 인구 10만명 당 치명적인 산업재해 건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5.3건)은 터키(7.5건)에 이어 두번째로 재해가 많았습니다. 이는 조금씩 감소해 2019년 4.6명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건설산업 노동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수는 25.45명으로 OECD 평균(8.29명)의 3배 이상으로 최하위입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OECD 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보고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OECD 35개국 중 34위(전 세계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상위권 국가는 덴마크(76.7), 스웨덴(74.2), 노르웨이(73.4)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2020년 기준). 기후변화 외에도 미세먼지 문제(38위/38개국), 해수면 상승(19위/20개국),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34위/38개국) 등 고질적인 환경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연재해] 태풍 증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에도 태풍(오마이스, 찬투)과 폭염, 집중호우로 679억원의 농업피해를 겪었으며 2019년 태풍, 2020년 장마 등 이상기후를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재해 정보(EM-DAT) 데이터 분석 결과, 2010~2021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태풍은 14회로 OECD 33개국 중 6번째로 많았습니다. 태풍 누적 발생량 1위는 미국(192회)이며, 일본(49회)와 멕시코(47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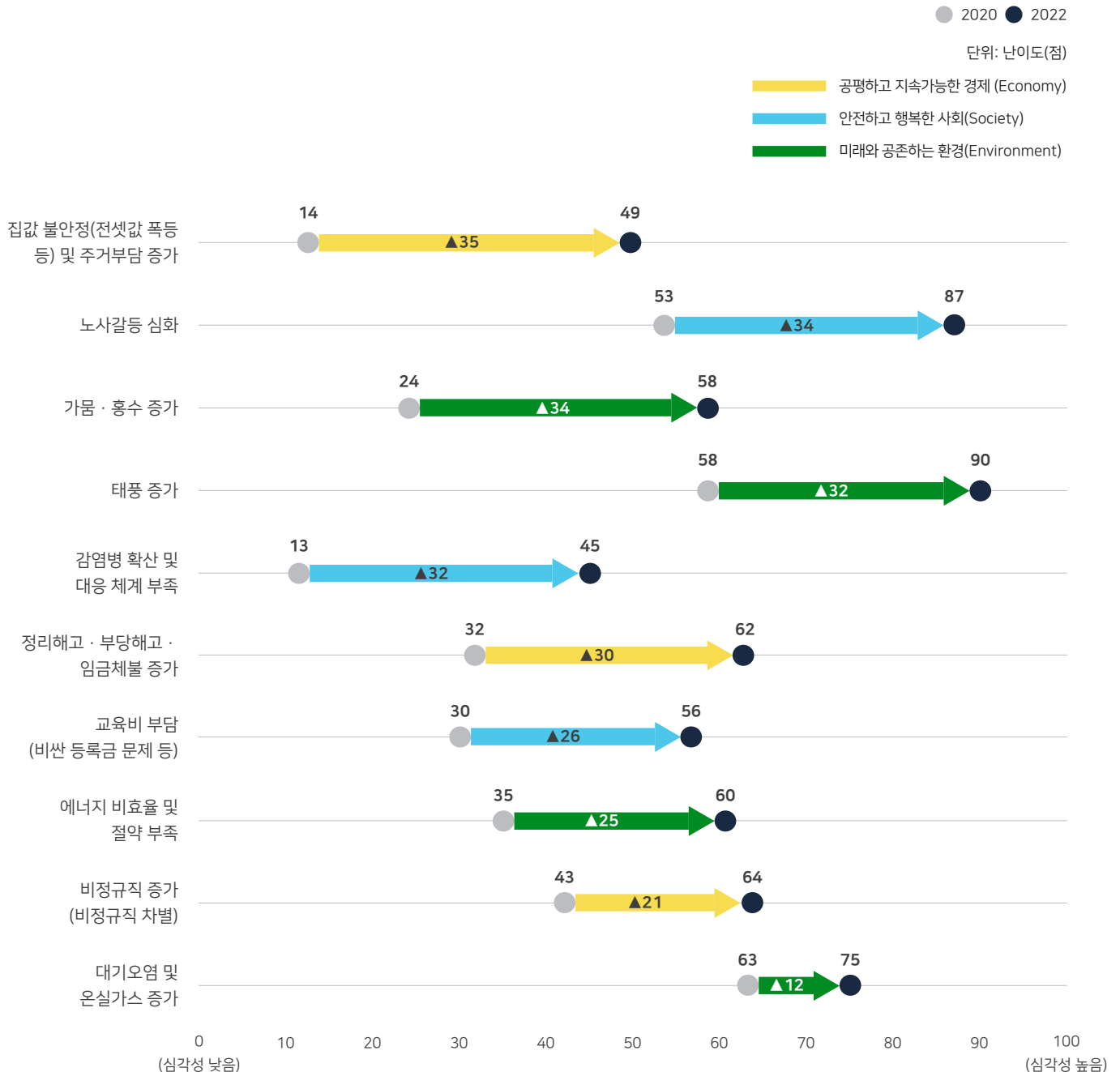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정부와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생산량은 여전히 적은 수준입니다. OECD 38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38위 최하위였습니다(2020년 기준). 한국은 에너지 비효율 문제(36위/38개국)와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33위/38개국) 등 에너지 공급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OECD 국가들 대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심각성 급등 이슈 Top 10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에서 급속도로 심화된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최근 3년간 OECD 주요국 대비 문제 해결 난이도(심각성)의 증가세가 가파랐던 상위 10개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해당 이슈들은 2020년 대비 2022년 문제 해결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져, 향후 대비가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 2020-2022 비교]



※Note: 2020년과 2022년 당해 연구 시점(5월)에 수집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순위 데이터의 기준 연도가 연구를 진행한 시점의 연도와 다를 수 있다.

최근 3년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이 가장 급등한 문제는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및 주거부담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전년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OECD, 2020년 기준)은 33개국 중 17위로, 2018년(28위/33개국)보다 악화됐습니다. OECD 지표가 국내 전세 제도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심각성은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9년 4분기 이후 1년 사이 13%가 상승했고, 이는 한국은행이 비교한 OECD 국가(실거래가 부동산 통계 기준)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속 집값 안정세를 찾아가기 위한 정책적 변화와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대응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필요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기준 OECD 34개국 중 4위였지만, 2019년부터 37개국 중 24위로 하락하였습니다. OECD 국가 대비 감염병 대응 체계가 부족한 현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 폭증, 마스크 대란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코로나에 이어 원숭이두창 감염병에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2의 코로나'를 추적하는 전문가팀을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대비에 나선 만큼, 한국의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 불안정으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과 차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쟁의 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141건(5위/18개국)으로, 2년 전(101건, 9위/29개국)보다 노사갈등이 많아졌고,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문제(OECD, 2019년 기준)도 38개국 중 13위로 매년 나빠져 왔습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2020년 기준 OECD 32개국 중 1위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동 시장의 안정과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3년간 빠르게 심화됐습니다. 자연재해 중에는 가뭄·홍수와 태풍 증가 문제(EM-DAT, 10년 누적 발생량 기준)의 심각성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한국의 가뭄·홍수 발생량은 32개국 중 15위로, 2년 전 기준(22위/26개국)에 비해 급속도로 심각해졌습니다. 태풍 증가 문제도 33개국 중 6위로, 2019년(9위/31개국)보다 악화됐으며, 문제 해결 난이도가 10개 이슈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문제(OECD, 2020년 기준)도 눈에 띕니다. 역시 에너지 생산성이 38개국 중 33위로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되면서 심각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ovid 19 Survey Analysis 코로나와 국민의 삶

코로나19 발생 3년차, 유례없는 팬데믹을 경험한 국민들의 행복감과 사회 각 주체들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작년 조사에서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경험한 '불안'과 '불편'으로 인해 행복감이 하락했으며 소득수준,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엔데믹을 기대하는 2022년까지 코로나와 함께 변화한 국민의 삶을 지역, 직업, 연령, 소득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힘겹게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

팬데믹에 이어 오미크론 확산세를 겪은 국민들의 행복감은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를 겪은 3년 동안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진 국민은 강원 지역(-1.59)에서 자영업(-1.41)을 하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1.06)의 30대(-1.0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최대 +5점) 혹은 더 불행해졌다(최저 -5점)는 응답자 평균값을 통해 '행복도'를 도출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강원 지역(-1.59)

대구 (-1.40)
경북 (-1.30)



자영업자 (-1.41)

전업주부 (-1.11)
기능/작업직 (-1.11)



100만원 이하 (-1.06)

101-200만원 (-0.88)
201-300만원 (-0.87)

30

30대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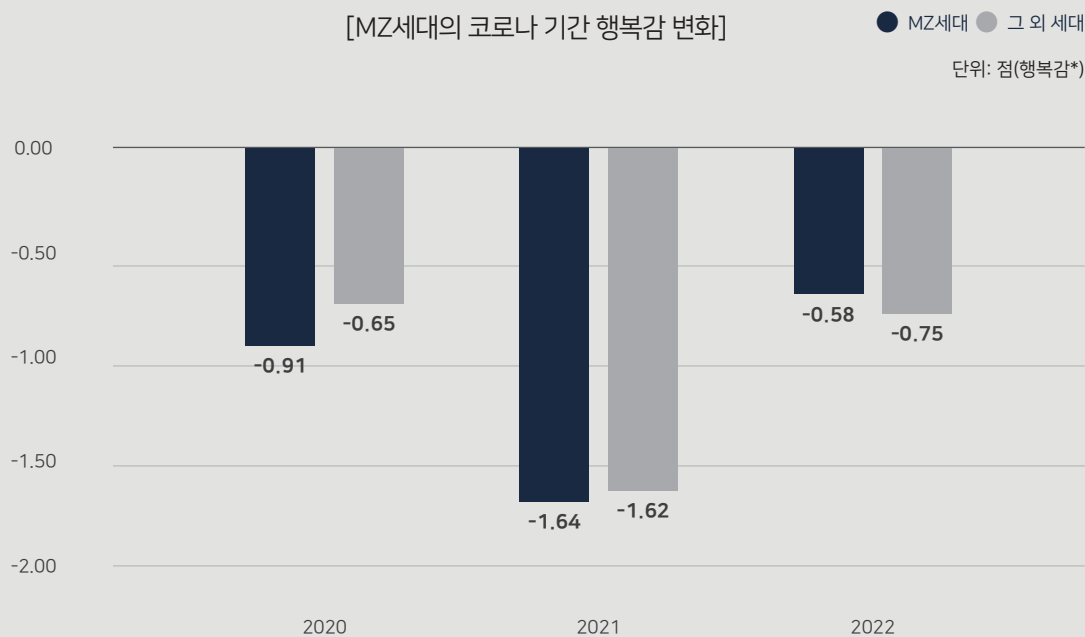
40대 (-1.03)
60대 이상 (-1.02)

자영업자는 3년 연속 행복도가 가장 낮은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저하가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전업주부와 기능/직업직 종사자들도 3년간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별로도 행복감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중위 소득 이하의 응답자들의 행복도는 중위 소득 이상 보다 2배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행복도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4 행복도 : 코로나 이전 대비 행복감 변화에 대해 '더 불행해졌다(-5점)~변화없다(0점)~더 행복해졌다(+5점)'로 응답한 평균값

코로나 3년차, 세대별 행복감 교차

모든 세대가 코로나 기간 동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지난 3년간의 행복도 변화는 MZ세대와 다른 세대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세대 모두 2021년 행복감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과 2022년 행복감은 MZ세대와 그 외 세대가 서로 교차되는 양상입니다. 코로나 직후인 2020년 MZ세대의 평균 행복도는 -0.92점으로, 그 외 세대(-0.65점)에 비해 더 불행하다는 인식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코로나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MZ세대와 다른 세대간의 행복도 격차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0.61점으로 그 외 세대(-0.75점)보다 행복감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다른 세대가 느끼는 행복감은 2020년 -0.65점에서 2022년 -0.75로 행복감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복감에 대한 인식과 회복탄력성 모두 MZ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행복감: 코로나 이전 대비 행복감 변화에 대해 '더 불행해졌다(-5점)~변화없다(0점)~더 행복해졌다(+5점)'로 응답한 평균값

삶의 질 저하 경험한 국민, 코로나 이후 가장 불행해져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3년간 어떤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큰 차이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과 회복기에 다다른 2022년에는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겪는 이들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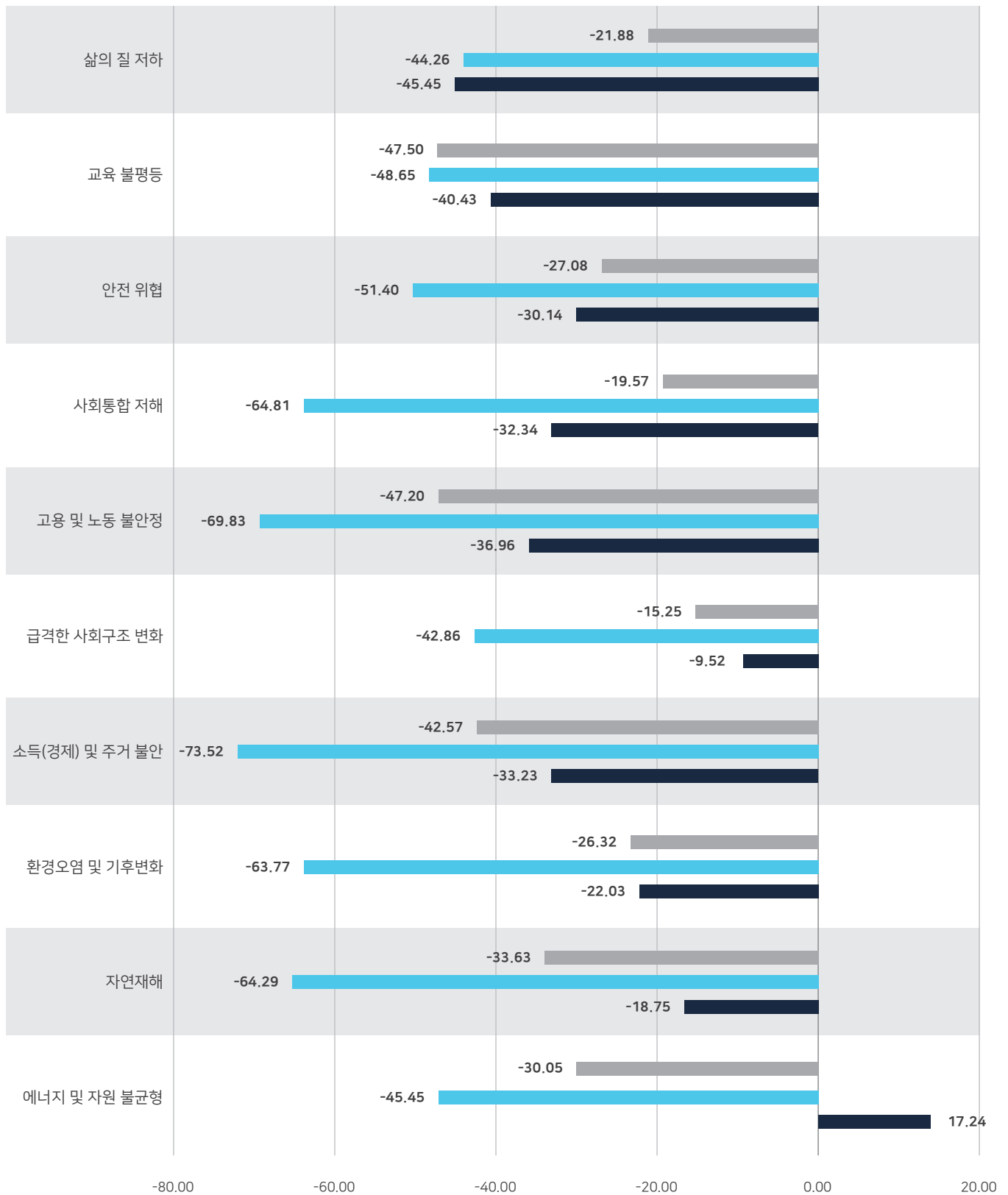
반면, 코로나가 장기화된 2021년에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 불안정, 사회통합 저해 문제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한 이들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지구적인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는 가정 경제와 일자리의 불안정 문제 해소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 회복을 준비하는 2022년에는 교육 불평등, 안전 위협, 그리고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한 국민들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거나, 취업 기회가 줄어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행복감 변화]

● 2020 ● 2021 ● 2022

단위: 점(행복 변화도*)



* 코로나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6~10점)'는 (+) 응답자 평균값에서 '더 불행해졌다(0~4점)'는 (-) 응답자 평균값을 뺀 결과값(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중립 답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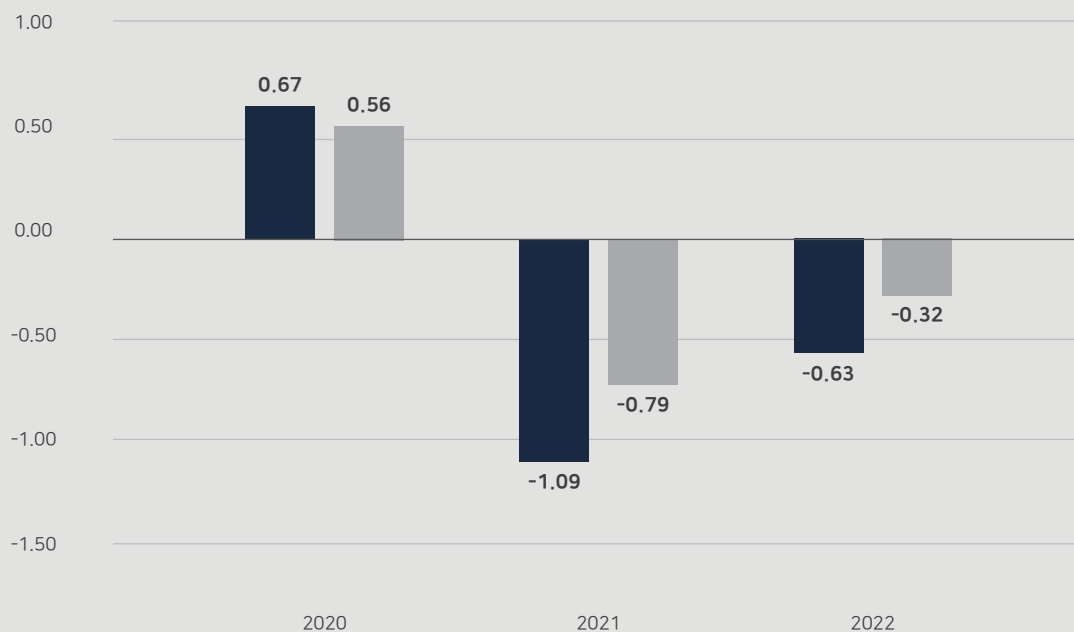
MZ세대, 사회안전망 신뢰 떨어져

MZ세대는 코로나 기간 국내 사회안전망에 대한 실망감을 좀처럼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 사회안전망에 대한 MZ세대의 평가(0.67점)는 다른 세대(0.56점)에 비해 0.1점 높았으나, 2021년 -1.1점으로 다른 세대(-0.79점)보다 0.3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MZ세대의 사회안전망 평가 점수는 -0.63점으로 다른 세대(-0.32점) 보다 신뢰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Z세대의 코로나 기간 사회 안전망 평가 변화]

● MZ세대 ● 그 외 세대

단위: 점



*신뢰도: 코로나 이전 대비 신뢰도 변화에 대해 '더 불신하게 됐다(-5점)~변화없다(0점)~더 신뢰하게 됐다(+5점)'로 응답한 평균값

Action Impact Analysis 사회문제 해결 유형 분석

국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유형을 들여다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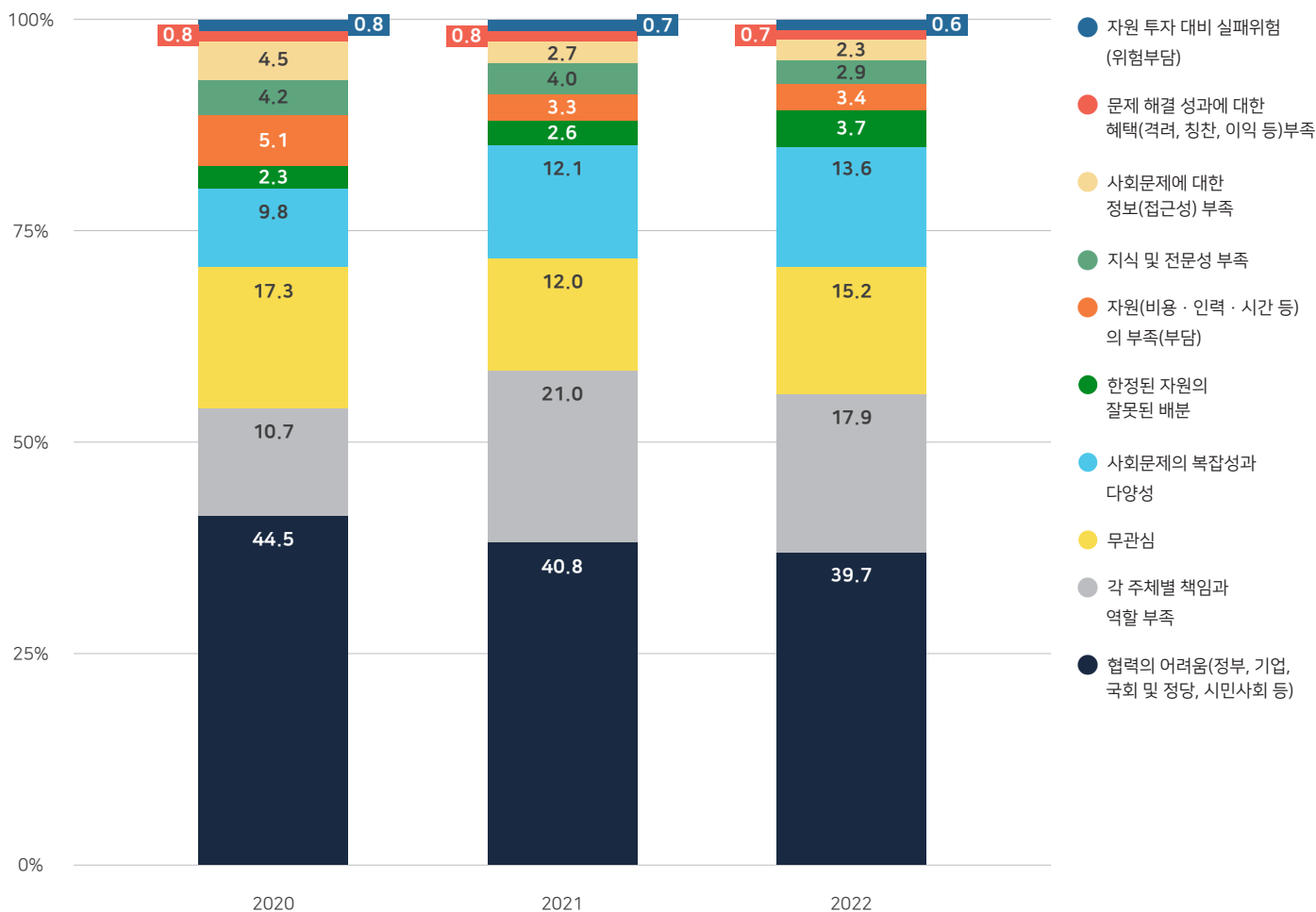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필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상당수가 정부, 기업, 국회 및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어렵기 때문(39.7%)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증가폭이 컸던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 부족(17.9%, ▼3.1%p)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반면 지난해 가장 감소폭이 컸던 무관심(15.2%, ▲3.2%p)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13.6%, ▲2020년 대비 3.8%p)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응답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2020-2022]

단위: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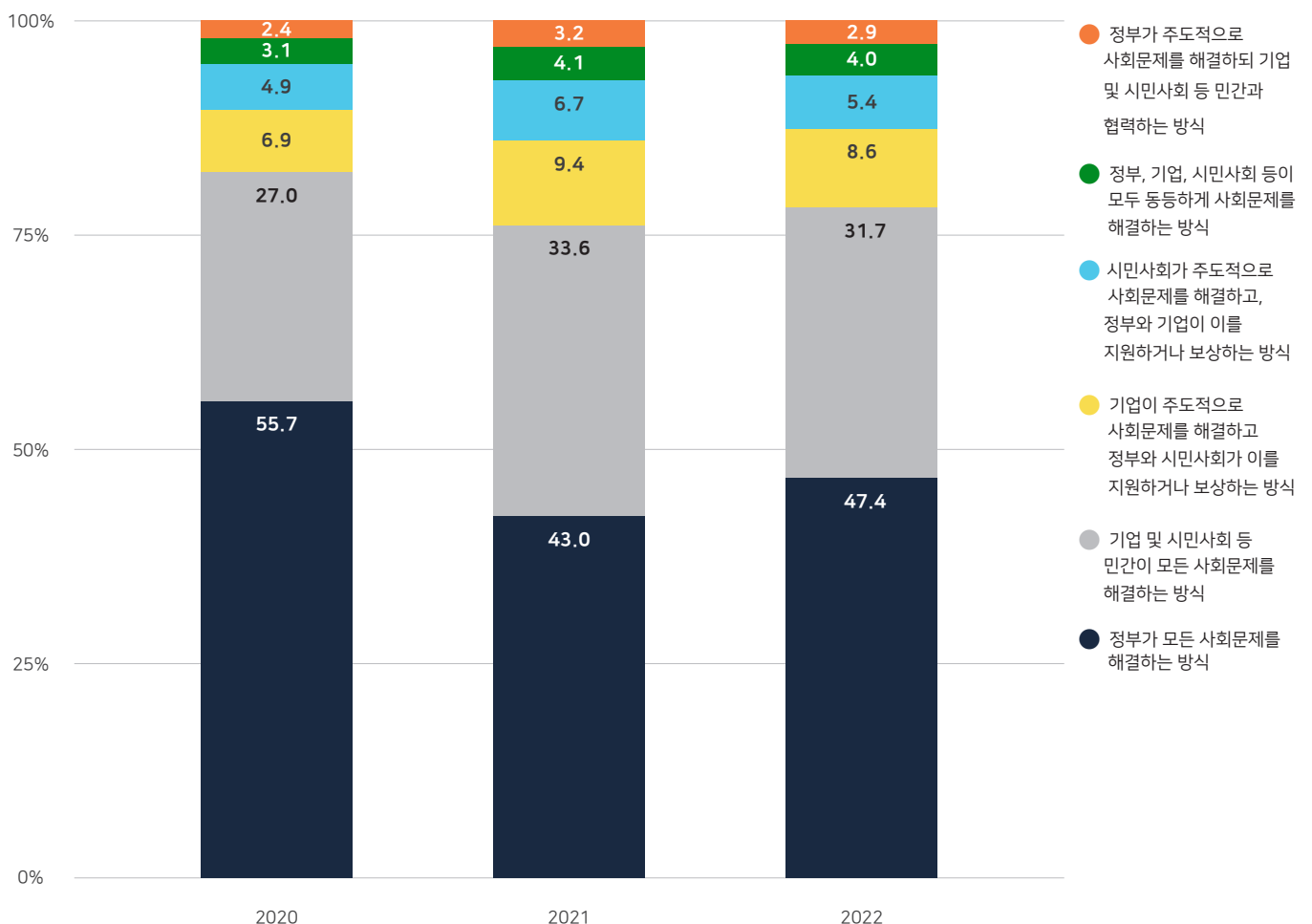


다양한 주체의 문제 해결에 주목

그렇다면 어떤 주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국민의 47.4%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하며 3년 연속 1순위 응답으로 꼽혔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8.3%p 감소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4.4%p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 정부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원하던 국민들은 2021년 이후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시너지를 높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2020-2022)]

단위: 선택 비율(%)



사회문제, 누구 책임일까

사회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및 정당에게 경제 및 사회 이슈 전반의 책임(문제 발생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오염·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사회문제별 책임 주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자연재해(▲46명),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45명) 등 환경 이슈에서 정부의 책임을 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안전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개개인의 책임을 말하는 국민의 숫자(▲44명)가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응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 책임 주체]



분류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타 국가)	개개인
소득(경제)및 주거 불안	616	252	32	6	21	11	2	3	57
고용 및 노동 불안정	449	193	255	17	13	21	7	5	40
교육 불평등	581	206	30	18	16	8	7	2	132
삶의 질 저하	558	240	16	19	32	11	8	4	112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46	204	21	10	39	20	8	5	147
사회통합 저해	341	377	36	38	80	9	6	3	110
안전 위협	506	147	35	12	57	16	12	14	201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232	94	182	23	11	29	100	50	279
자연재해	237	69	101	15	13	25	159	72	263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470	94	120	22	7	26	89	49	77

사회문제, 누가 해결해야 할까

국민들은 10개 사회문제 테마 모두 정부가 해결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득(경제)및 주거 불안(647명), 교육 불평등(598명), 안전 위협(574명)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응답이었습니다.

한편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는 정부(260명), 기업(133명), 국제기구(194명), 개개인(188명) 순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기업(▲28명)에 대한 문제 해결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기후 위기 시대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통합 저해' 문제의 해결 주체로는 미디어(▲44명)를 꼽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며, 정부, 국회 및 정당에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해주길 바라는 3대 주체로 선정됐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주체]



분류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타 국가)	개개인
소득(경제)및 주거 불안	647	173	58	18	10	29	8	7	50
고용 및 노동 불안정	414	153	316	24	8	39	5	4	37
교육 불평등	598	183	32	40	25	27	5	10	80
삶의 질 저하	569	162	30	56	19	35	11	7	111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63	169	24	49	29	36	7	6	117
사회통합 저해	381	240	30	76	107	45	15	7	99
안전 위협	574	120	27	61	43	15	20	12	128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260	61	133	64	20	50	194	30	188
자연재해	390	48	47	56	15	32	226	41	145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472	72	134	32	13	48	147	22	6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액션

사회문제 해결에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의 역할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액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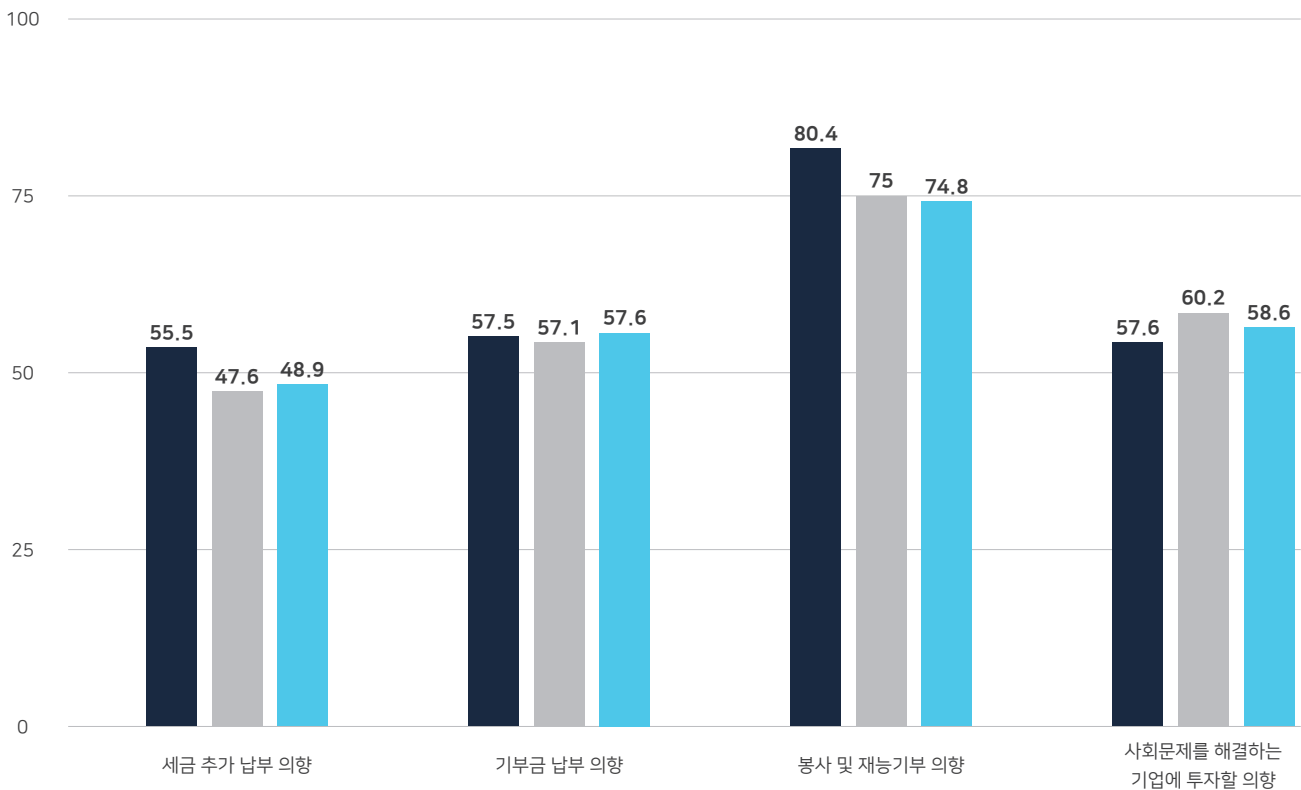
봉사 및 재능기부 3년 연속 하락세

지난해와 동일하게 봉사 및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74.8%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 약 60%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 및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투자(58.6%), 기부(57.6%), 세금 추가 납부(48.9%) 의향이 뒤를 이었습니다. 증세 의향은 40대(55.5%), 투자 및 기부 의향은 50대(각 63%, 65.2%), 봉사 및 재능기부 의향은 60대 이상(78.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 및 재능기부에 대한 답변은 3년 연속 1순위를 차지했지만 하락세를 보였으며, 기부금 납부 의향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별 국민의 참여 의향]

● 2020 ● 2021 ● 2022

단위: 국민 1000명 중 해당 액션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추가로 더 납부할 수 있는 세금 비율

추가로 더 기부할 수 있는 금액

추가로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

2020년	21.98%	13만 1,998원	9시간 30분
2021년	11.09%	14만 7,300원	9시간 20분
2022년	11.74%	18만 7,700원	8시간 42분

그렇다면 국민은 매달 얼마큼의 비용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월평균 중세 비율은 지난해 11.09%에서 올해 11.74%로 소폭 증가했고, 봉사 및 재능기부 의향은 월 9시간 20분에서 8시간 42분으로 줄었습니다. 기부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금액은 지난해 14만 7,300원에서 올해 18만 7,7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 해결 위한 액션, 보다 소극적으로

국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영향력이 큰 Top3 액션으로 투표(33.3%), 책임있는 소비 활동(15.5%), 언론 및 SNS로 문제 공론화(14.2%)를 꼽았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3년간 동일한 순위로, 다른 액션들과 평균 10%p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문제 해결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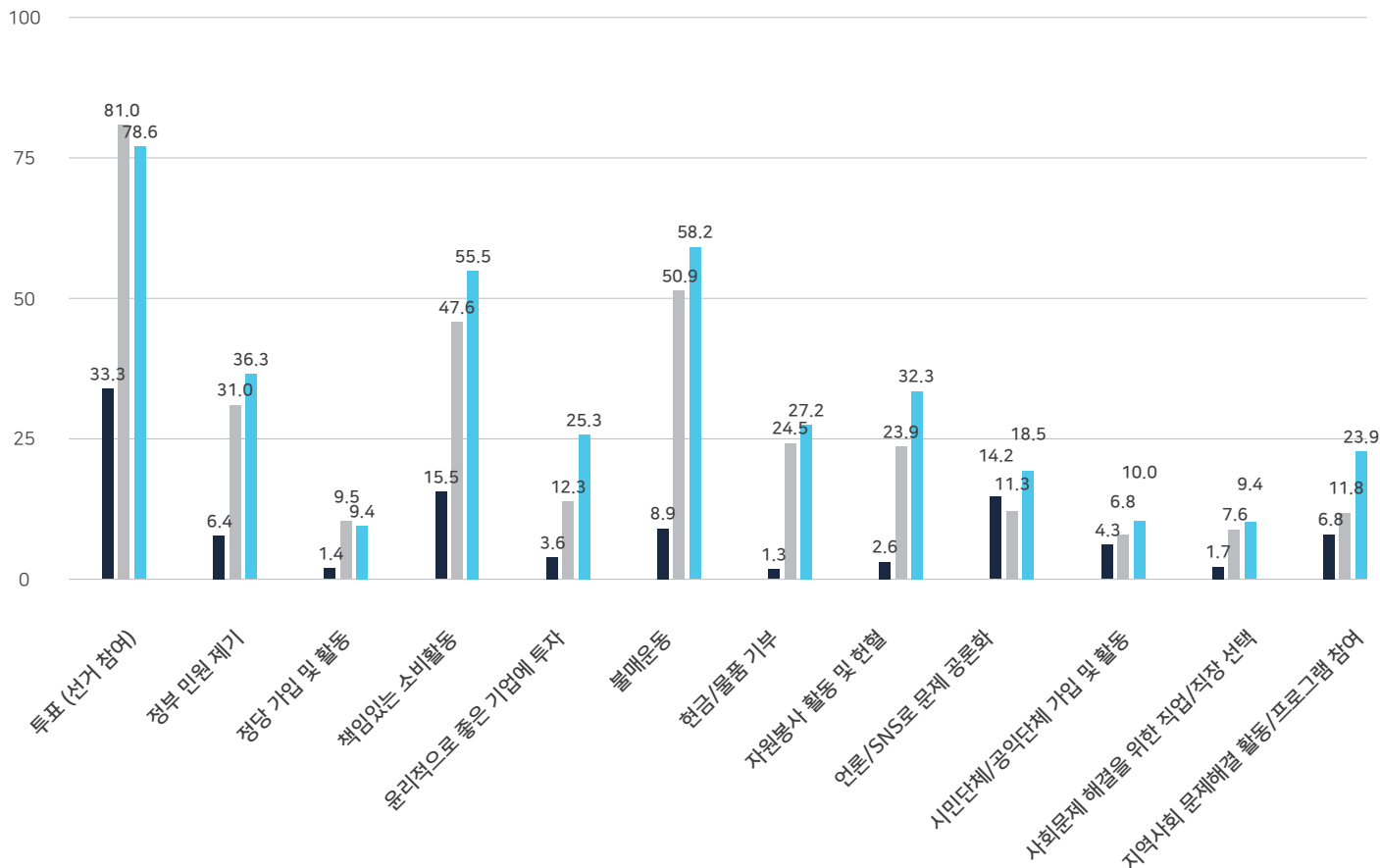
향후 1년 이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할 액션 유형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표(78.6%)가 가장 많았고, 불매운동(58.2%)과 책임있는 소비활동(55.2%)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추가된 문제 해결 액션 유형 중에서 향후 1년간 참여의사가 있는 액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가 23.9%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직장을 선택했다'는 답변도 9.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주민 주도형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문제 솔루션을 찾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과 비교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보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실제 실천한 행동들이 평균적으로 2020년 보다 ▼4.7%p, 2021년 대비 ▼3.7%p 하락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정부 민원제기(▼13.3%p)'를 한 국민 수가 가장 줄었고, '불매운동(▼5.5%p)'과 '책임있는 소비 활동(▼4.6%p)'을 실천한 이들도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기회와 의지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국민의 사회문제 해결 액션과 영향력 평가]

● 액션 영향력 평가 ● 지난 3년간 참여 액션 ● 향후 1년간 참여 의사가 있는 액션

단위: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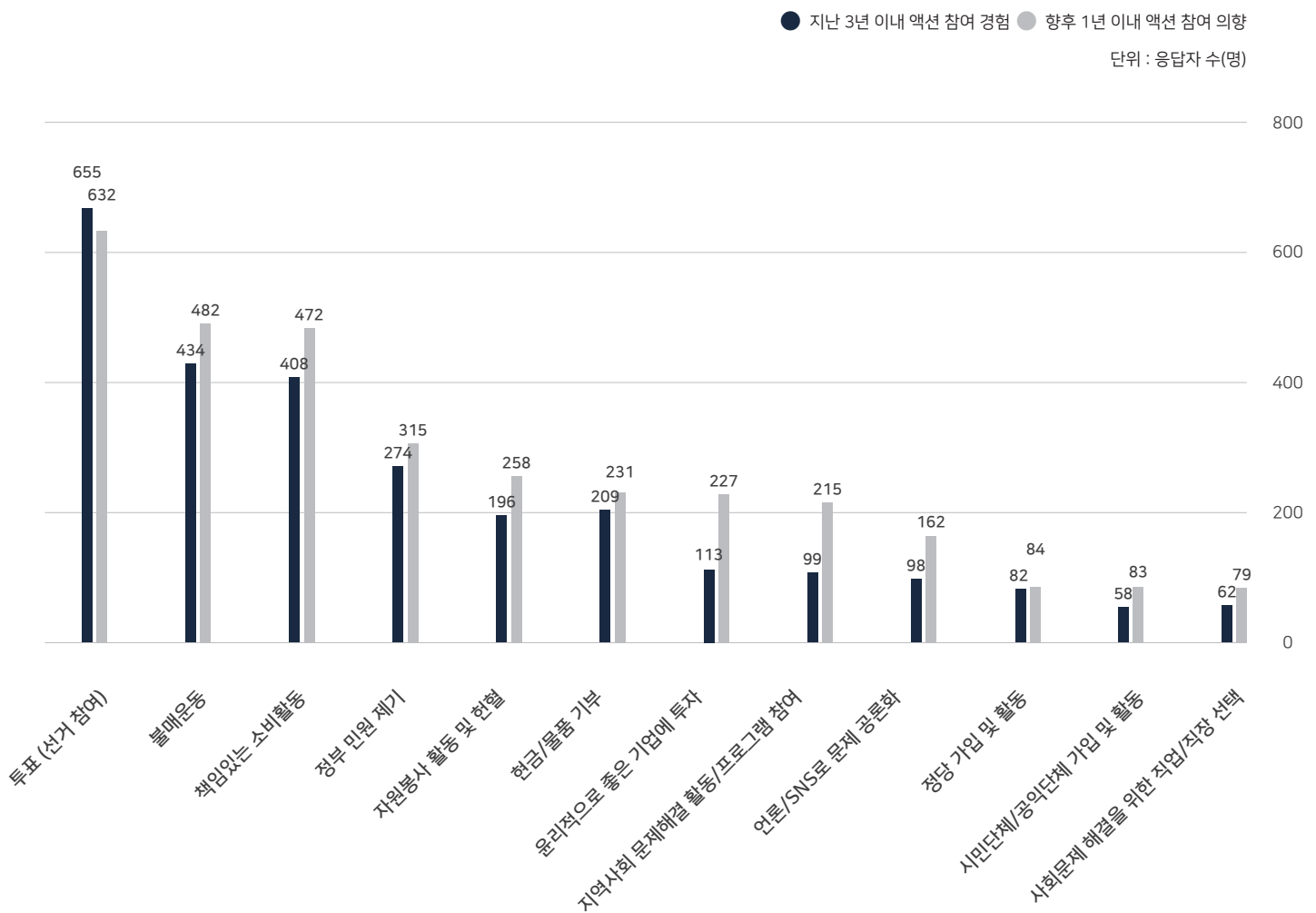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의 액션

한국인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10점 만점에 6.9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매우 관심없다 0점~매우 관심있다 10점)'를 묻은 결과로, 지난해 6.88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6~10점)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투표, 불매운동, 책임있는 소비활동, 정부 민원제기 순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참여한 경험(2,688회)보다 향후 1년 이내 참여할 의향이 있는 액션(3,240회)이 약 21%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액션이 다각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년간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Top3 액션(투표, 불매운동, 책임있는 소비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액션이 실제 정부 및 기업에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의 문제 해결 액션 유형(중복 응답)]



#투표하는 이유 (키워드 분석 Top2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중에서 '투표'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투표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의 권리를 가진다", "투표 참여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지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집단 및 개인을 선발할 수 있다"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으며, "국민의 뜻을 직접 알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책임있는 소비를 하는 이유 (키워드 분석 Top20)

가치 소비가 문제 해결의 영향력이 가장 큰 액션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기업'의 '책임'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특히 '친환경' '제품' '구매'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야말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를 통해 기업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있는 소비를 통해 "친환경적, 공정한 기업,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을 지켜나가면 좋겠다", "좋은 소비로 좋은 기업을 이끌어내길 바란다"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 (키워드 분석 Top20)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이를 '기업'을 향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기업의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비윤리적인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게 당장 할 수 있다", "즉각적인 영업이익 감소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외면한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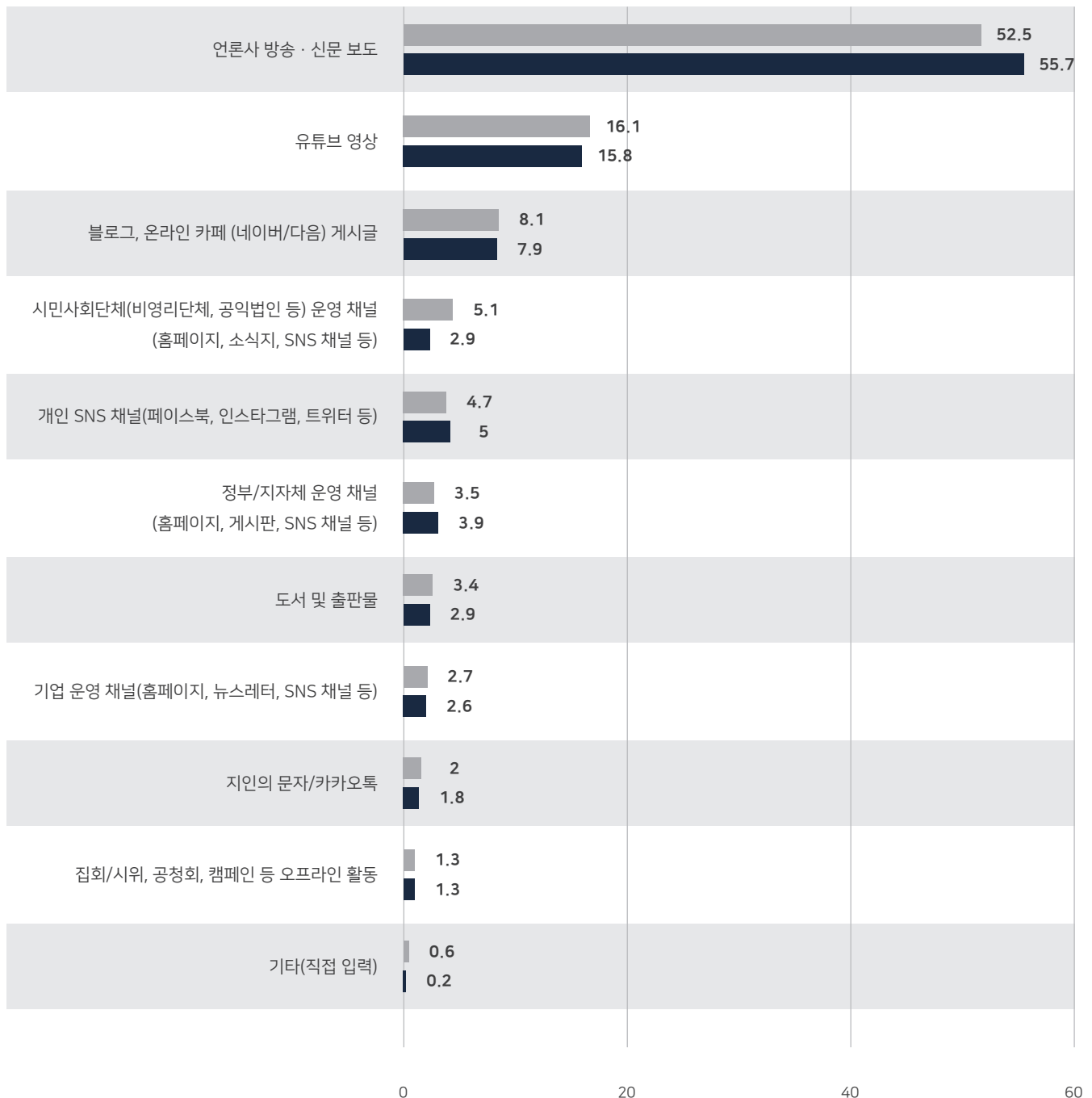
Channel & Information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과 인식도

국민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로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55.7%)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 영상(15.8%), 블로그 및 온라인 카페(7.9%), 개인 SNS 채널(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1순위 응답 집계). 타 집단 대비 20대는 유튜브 영상(25.8%) 보기를, 50대는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62.2%)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방송·신문을 통한 정보 접근(▲3.2%p)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시민사회단체 운영 채널(▼2.2%p)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 유형]

● 2021 ● 2022

단위: 선택 비율(%)



그렇다면 채널별 사회문제 인식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회문제 관련 정보를 접하는 국민들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블로그 및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사회문제 관련 정보를 접하는 국민들은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 문제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 등 개인 SNS를 통해 사회문제 관련 정보를 접하는 국민들은 안전 위협 문제를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채널별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획득 채널별 사회문제 영향력 인식 순위]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를 통해 접하는 사회문제	1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2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3 사회통합 저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접하는 사회문제	1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2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3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블로그,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접하는 사회문제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2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3 안전 위협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접하는 사회문제	1 안전 위협	2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3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Chapter 3.

Special Analysis : Generation Gap

사회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Special Analysis : Generation Gap

사회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제 집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이슈가 더욱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지역·특성 등에 따라 문제의 체감도가 다르며, 문제 해결의 접근과 솔루션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한 지난 3년간 국민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3개년 시계열 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세대간 인식 격차와 갈등이 더욱 커졌다는 점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세대별 사회문제 인식 및 행동의 격차를 진단하고,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우리의 역할과 방법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Impact Awareness Gap

세대별 사회문제 인식 격차

지난 3년간 이어진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 결과, ‘세대/연령/성별 갈등 및 격차 심화’ 이슈는 OECD 국가 대비 심각성이 가장 높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로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경향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사회 주류로 떠오른 MZ세대(1981~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에 주목해, 세대간 사회문제 인식의 차이를 들여다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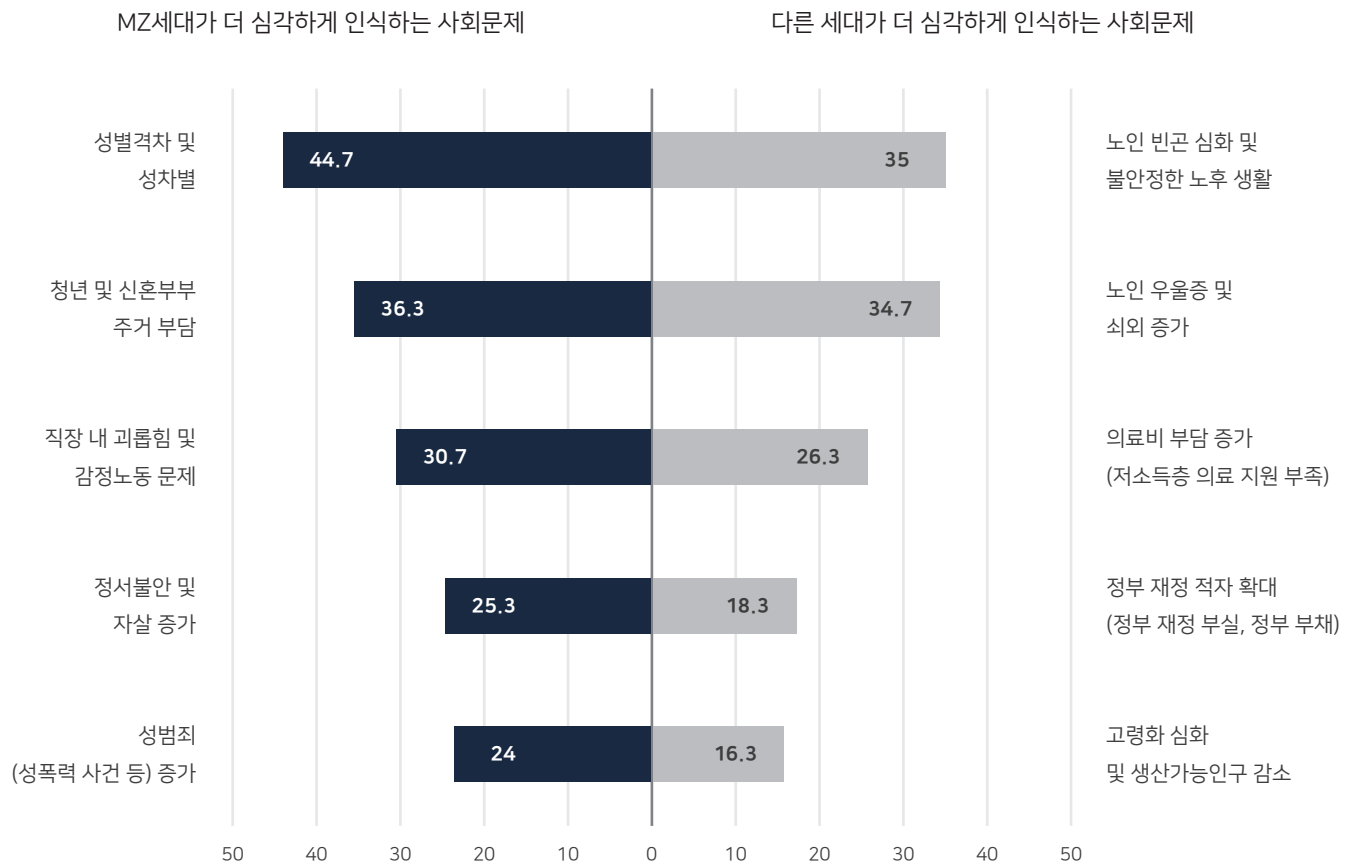
지난 3년간 MZ세대와 그 외 세대(~1980) 간의 인식 격차가 가장 큰 사회문제 영역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였습니다. 이는 세대간 사회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의 평균 격차가 가장 큰 이슈 Top10을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받는 이슈는 ‘성별격차 및 성차별(▲44.7)’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36.3)’,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36.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세대가 MZ세대에 비해 영향력을 크게 평가한 이슈는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35.0)’,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34.7)’,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2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Z세대는 소득, 성별, 직급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의 영향력을 그 외 세대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다른 세대의 경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노후, 건강 등)에 대한 걱정이 사회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간 인식 격차가 큰 사회이슈 TOP 10]

단위: 점(영향력 평가 격차, 3년 평균)



MZ세대가 새롭게 주목한 문제는 성차별과 성범죄

지난 3년간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한 사회문제는 차별과 갈등, 주거 부담, 사회안전망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MZ세대와 다른 세대간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MZ세대는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를 다른 세대 보다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으나, 2021년에는 3위, 2022년에는 8위로 그 순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1~2022년에 '성별 격차 및 성차별' 문제가 1순위 이슈로 떠올라, 성별 갈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2021년 새롭게 Top10 이슈에 포함된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문제는 2022년 3위에 오르며,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문제는 지난 3년간 다른 세대보다 특히 MZ세대가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대비 2022년에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세대 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대별 문제 해결 방식 격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로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대별 격차를 분석한 결과, MZ세대는 민간 주도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세대는 정부 주도 방식을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M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방식'을 2020년에는 4.79%p, 2021년에는 5.88%p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022년에는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3.25%p)'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민간 주도 선호도가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반면, MZ가 아닌 세대는 지난 3년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을 MZ세대 보다 평균 3.38%p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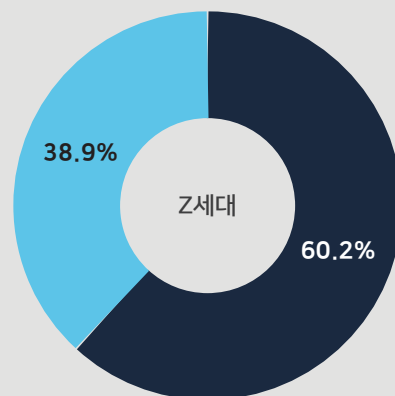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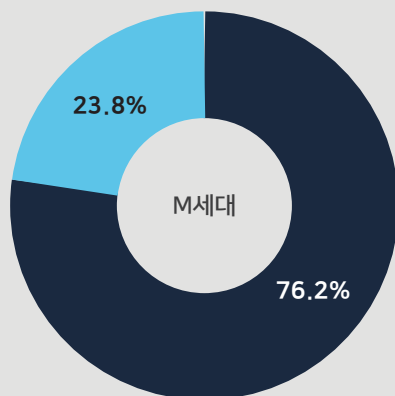
● MZ 세대가 더 바라는 사회문제 해결 방식 ● Non-MZ세대가 더 바라는 사회문제 해결 방식

사회문제 해결 방식	2020			2021			2022		
	MZ	Non MZ	MZ-Non MZ	MZ	Non MZ	MZ-Non MZ	MZ	Non MZ	MZ-Non MZ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2.87	3.23	-0.36	4.95	3.62	1.33	6.01	2.76	3.25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방식	8.02	3.23	4.79	10.44	4.56	5.88	6.53	4.7	1.83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26.07	27.5	-1.43	32.97	33.96	-0.99	30.55	32.41	-1.86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	53.58	56.84	-3.26	40.66	44.34	-3.68	45.43	48.62	-3.19

M세대 vs Z세대 성향 차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Z세대와 M세대의 인식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Z세대 보다 M세대가 약 16%p 더 많았습니다. 반면 Z세대는 M세대에 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약 16%p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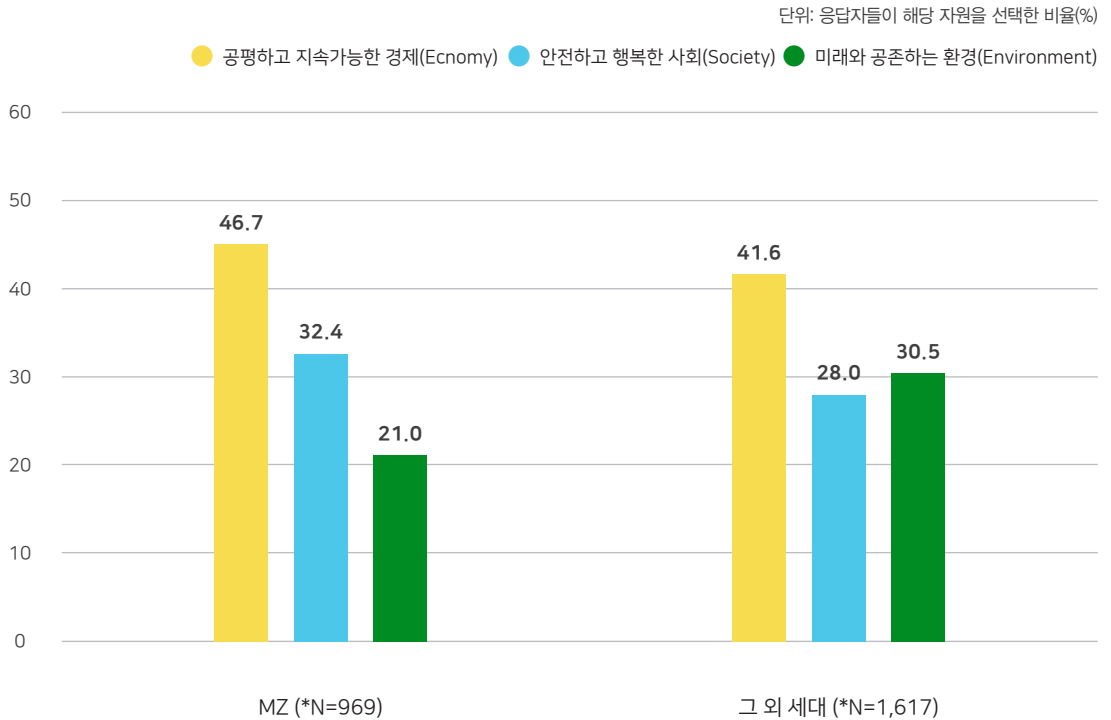
● 정부 주도로 사회문제 해결 ● 민간 주도로 사회문제 해결



MZ세대, 환경보다 경제·사회 문제 우선

M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 의지가 환경보다 12.4%p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반면, MZ가 아닌 다른 세대들은 사회 영역의 문제 해결보다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MZ세대가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기존 다른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해결 의지가 다른 세대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세금 · 투자 · 기부 · 봉사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자원(세금, 투자, 기부·봉사)에 있어서도 세대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를 위한 MZ세대의 세금 추가 납부, 기부·봉사 참여 의지가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은 그 외 세대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MZ세대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를 위해 세금, 투자, 기부·봉사 모두 다른 세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의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약 8%p 높게 나타나,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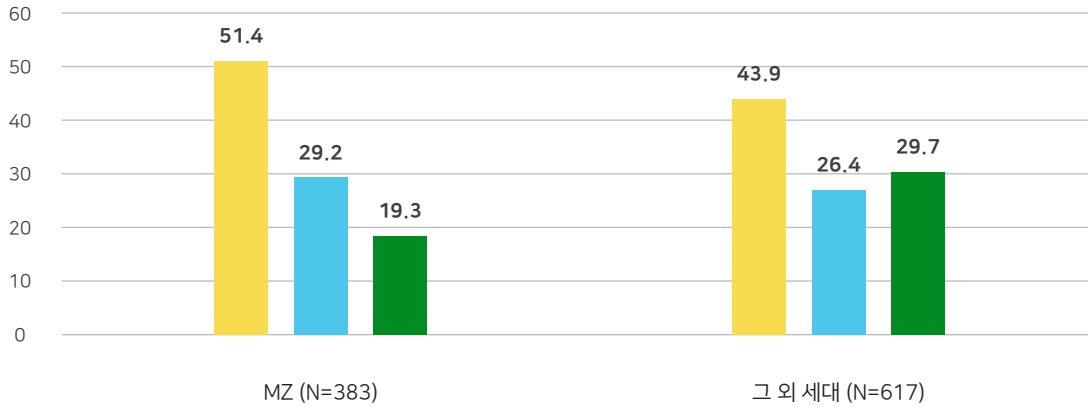
반면,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을 위해서는 MZ가 아닌 세대가 세금, 투자, 기부·봉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고용 불안, 사회안전망 이슈가 대두되면서, MZ세대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환경 이슈를 뛰어넘는 시급한 어젠다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별 자원 투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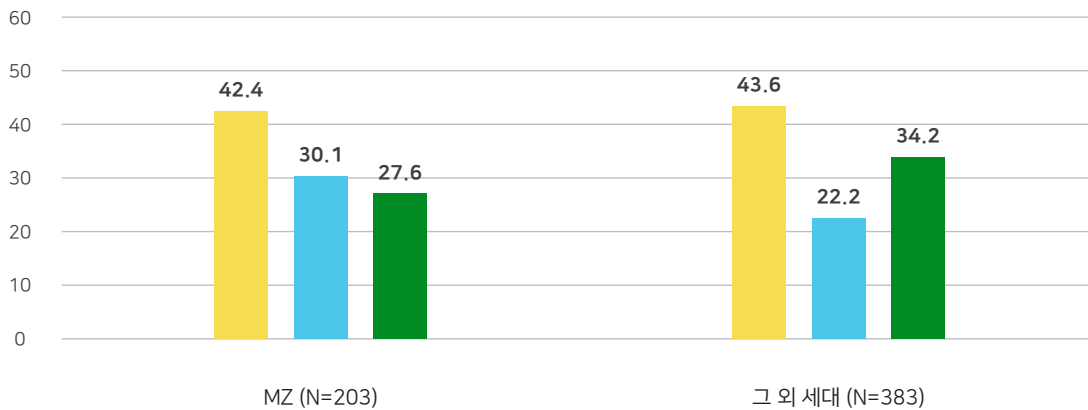
단위: 선택 비율(%)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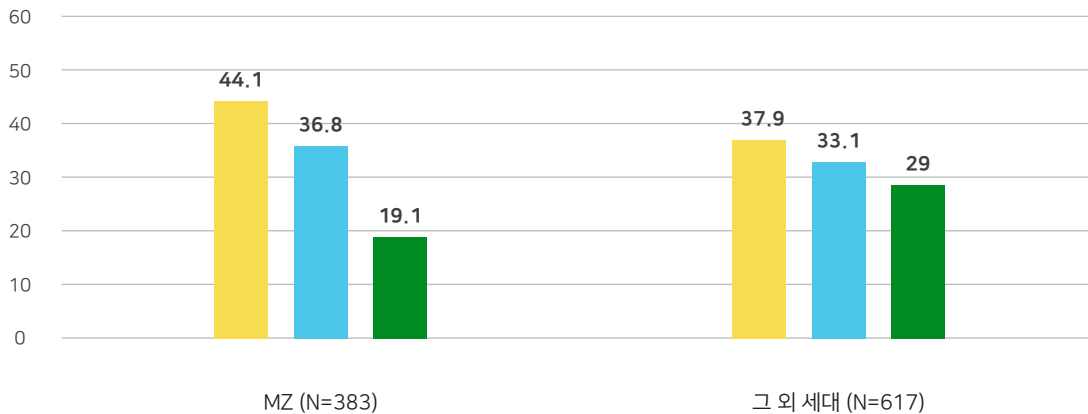
세금 추가 납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



투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



기부 및 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



세대별 문제 해결 액션 격차

개개인의 선택과 주도적인 행동(액션)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세대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MZ세대는 언론/SNS로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이 문제 해결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그 외 세대는 책임있는 소비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MZ세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 다른 세대는 '정부 민원 제기'를 더 효과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Z세대 vs Non MZ 세대, 문제 해결 액션에 대한 영향력 평가]

단위: 선택 비율(%)

순위	MZ세대 Top5 액션	Non MZ Top5 액션
1	투표 (선거 참여) 32.64	투표 (선거 참여) 33.71
2	언론/SNS로 문제 공론화 18.54	책임있는 소비활동 17.34
3	책임있는 소비활동 12.53	언론/SNS로 문제 공론화 11.51
4	불매운동 8.36	불매운동 9.24
5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 7.57	정부 민원 제기 7.46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별로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MZ세대는 자원봉사 활동과 헌혈, 불매운동, 정부에 민원제기를 다른 세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 외 세대는 가치소비와 책임투자, 정당 가입을 통한 의견 표명을 더 많이 했다고 답했습니다.

MZ세대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두고 불매운동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반면, 그 외 세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을 향한 세대별 인식이 행동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MZ세대 vs Non MZ 세대, 지난 3년간 참여한 문제 해결 액션]

	MZ세대	Non MZ 세대
1	자원봉사 활동/헌혈에 참여했다	윤리적이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 (친환경,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2	문제를 일으킨 비윤리적인 기업의 불매운동에 참여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펀드가입 포함)했다
3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했다	정당에 가입해 (의견 표명)활동을 했다

향후 1년 이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겠다는 액션은 특히 2022년 MZ세대와 그 외 세대간 격차가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Z세대는 향후 1년 이내에 자원봉사와 기부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고, 특히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신념에 부합하는 직업/직장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MZ가 아닌 세대는 상대적으로 가치소비와 불매운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기부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MZ세대의 의지가 높은 만큼, 이러한 관심이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MZ세대가 직업과 직장 선택에 있어서도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연결시키는 만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MZ가 아닌 세대의 경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 의지가 높은 만큼, 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Z세대 vs Non MZ 세대, 향후 1년 이내에 참여할 문제 해결 액션]

	MZ세대	Non MZ 세대
1	자원봉사 활동/헌혈에 참여하겠다	윤리적이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 (친환경,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2	현금/물품 등을 기부하겠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3	이러한 신념에 부합하는 직업/ 직장을 선택하겠다	사회문제를 일으킨 비윤리적인 기업의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

Chapter 4.

Sustainability Issues Analysi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Analysis for Sustainability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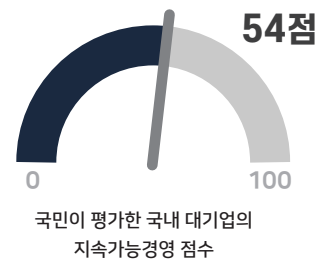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나가는 '신(新)기업가 정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국민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Public Sustainability Issues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국민들은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9점 가량 소폭 높아진 점수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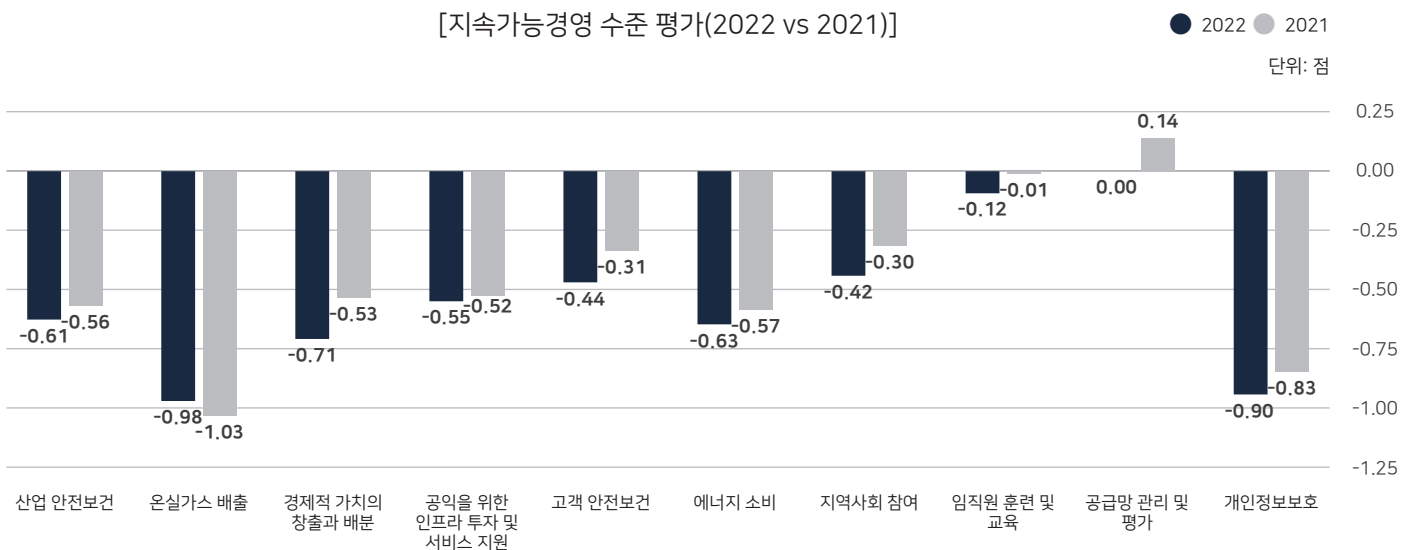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경제적 가치 배분, 부정 평가

지속가능경영 10대 카테고리별로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현재 수준을 '매우 부정적(-5점)~매우 긍정적(+5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0.98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의 창출 및 배분(-0.71점, ▼0.18)의 경우 지난해 보다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아진 항목으로, 기업이 창출한 수익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너지 소비(-0.63점), 산업 안전보건(-0.98점)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많았습니다. 기후위기와 안전 사고 대응을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가 나왔던 공급망 관리 및 평가 역시 0점을 받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장기화된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수준 평가(2022 vs 2021)]



5 설문을 위한 평가 항목은 GRI · SASB · MSCI · DJSI 등 글로벌 주요 지속가능경영 항목을 통합한 지표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산업 30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공식 자료를 통해 취합 및 도출한 중대 이슈 Top 30을 집중도 · 중요도 중심으로 통합한 '지속가능경영 10대 카테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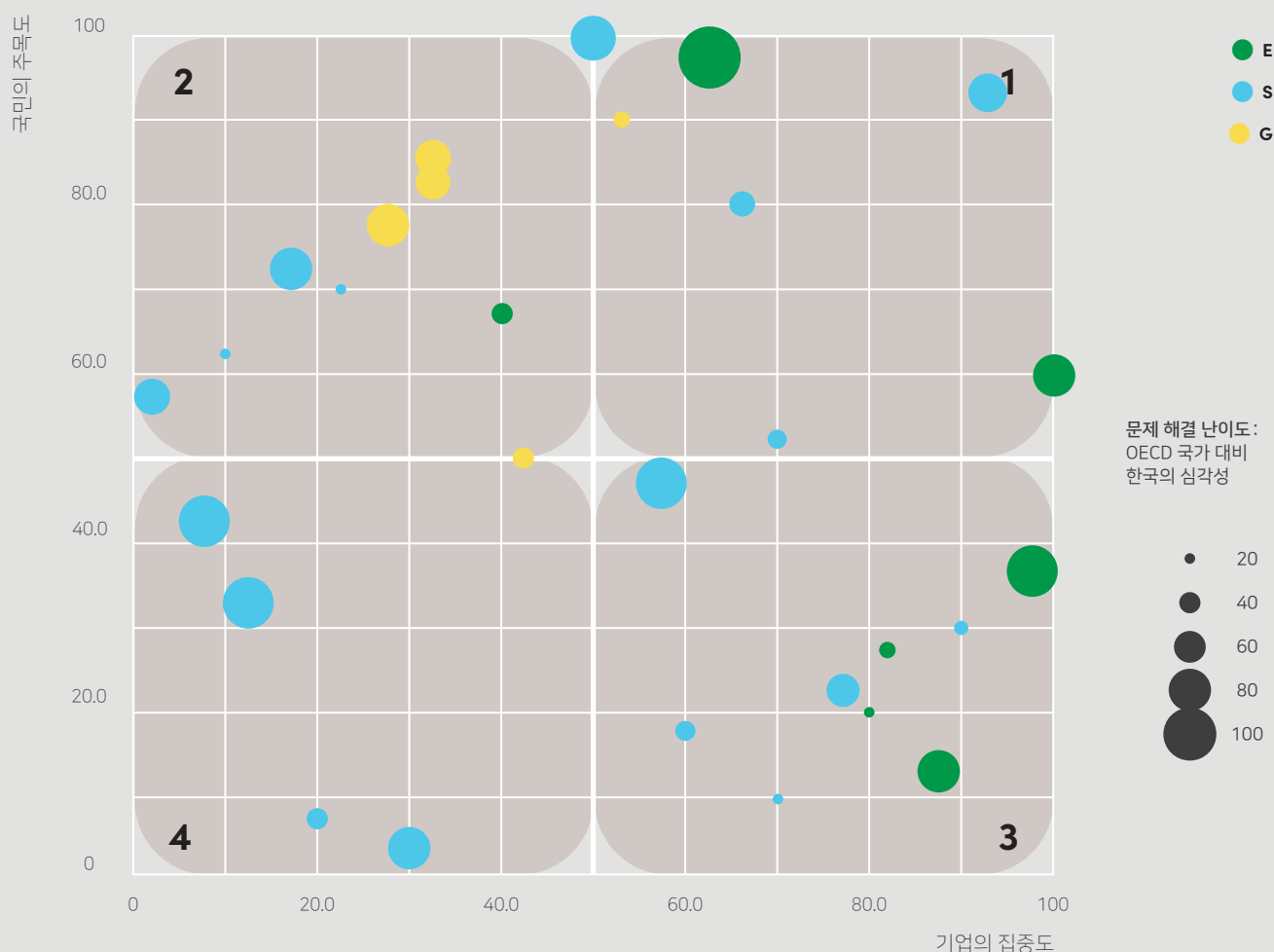
Sustainability Gap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전략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고 비즈니스에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통해서도 국민들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사회·환경적 가치를 높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주요 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 중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 관련 세부 이슈를 제외한 ‘ESG 이슈 25’를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ESG 이슈와 기업이 집중하는 ESG 이슈간 Gap을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민의 주목도(Y축)와 기업의 집중도(X축)를 바탕으로 ESG 이슈별 한국의 문제 해결 난이도를 접목해, ‘지속가능경영 미스매치 매트릭스(Sustainability Gap Matrix): ESG 관점⁶⁾에 나타난 분포에 따라 4가지 영역별 ESG 전략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Sustainability Gap Matrix : ESG Approach



6 Y축 ‘국민의 주목도’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ESG 이슈 25’중에서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X축 ‘기업의 집중도’는 국내 주요 산업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ESG 이슈 25’ 집중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문제 해결 난이도’는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로,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 중에서 문제 해결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이슈(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취약계층 일자리,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고등교육의 질 저하, 불임 및 난임 증가, 폭설 및 폭우 증가, 화산폭발 위험 증가)들은 각 사회문제 10대 테마의 난이도 평균치로 분석한 값이다.

1 국민과 기업이 모두 집중하는 영역 신뢰경영과 미래 인재 육성 필요

현재 국민과 기업이 모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신뢰 경영과 미래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영역은 국민과 기업이 모두 집중하는 영역으로, 현재와 미래 집중해야 하는 ESG 과제입니다. 지난해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 집중됐던 모습과는 달리, 올해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문제가 새롭게 편입되며 국민과 기업 모두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문제는 기업의 집중도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로, 윤리경영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G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100.0	50.0	50	50
E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6.7	63.3	33	92
S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93.3	93.3	0	85
S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80.0	66.7	13	35
E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60.0	100.0	40	75
S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53.3	70.0	17	23

*국민의 주목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기준으로 기업의 집중도와 국민과 기업간 Gap, 문제 해결 난이도를 연계하여 도출한 값이다.

2 국민이 기대하지만 기업은 집중하지 않는 영역 사람 중심 경영으로 불균형 해소

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반면, 국민이 주목하는 영역으로 미래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ESG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은 해당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이슈는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지역발전 불균형' 이슈는 모두 지난해에 이어 국민과 기업의 집중도 Gap이 크게 나타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G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76.7	26.7	50	82
S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73.3	16.7	57	80
S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70.0	23.3	47	8
E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66.7	40.0	27	41
S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63.3	10.0	53	19
S	지역발전 불균형	56.7	3.3	53	66

*국민의 주목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기준으로 기업의 집중도와 국민과 기업간 Gap, 문제 해결 난이도를 연계하여 도출한 값이다.

3 국민보다 기업이 더 집중하고 있는 영역 사회·환경 리스크 대응 및 관리 필요

국민의 주목도는 낮으나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으로,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올해는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과 의료비 부담 증가, 재해지원 및 대응 부족 문제가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된 의료비 부담과 교육 격차, 산발 피해로 인한 복구를 위해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사회, 환경적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기업이 대응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S	성별격차 및 성차별	46.7	56.7	10	92
E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위험관리 체계 부족)	36.7	96.7	60	91
E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30.0	90.0	60	22
E	(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증가	26.7	83.3	57	28.6
S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23.3	76.7	53	68
E	대형산불 증가	20.0	80.0	60	4
S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16.7	60.0	43	31
E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13.3	86.7	73	87
S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10.0	70.0	60	4

*국민의 주목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기준으로 기업의 집중도와 국민과 기업간 Gap, 문제 해결 난이도를 연계하여 도출한 값이다.

4 국민과 기업 모두 주목도가 낮은 영역 협력을 통한 중장기 과제 해소

국민의 주목도와 기업의 집중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문제 해결 수준이 가장 낮은 저출산, 정서불안 및 자살증가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감정노동 문제 역시 조직 차원의 정책 및 문화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인 채용 및 연계고용 등을 통해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액션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시너지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S	저출산 문제	43.3	6.7	37	92
S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40.0	46.7	7	-
S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33.3	13.3	20	92
S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6.7	20.0	13	45
S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3.3	30.0	27	75

*국민의 주목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기준으로 기업의 집중도와 국민과 기업간 Gap, 문제 해결 난이도를 연계하여 도출한 값이다.

국민은 ESG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기업의 경영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주요 키워드인 ESG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전혀 모른다 0점~매우 잘 알고 있다 10점, 11점 척도)'는 질문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ESG를 알고 있다(46.7%, 5~10점 구간)'고 답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49.5%)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상의 이해도(6~10점)를 가진 국민들은 31.6%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7%p 높아졌습니다. 특히 ESG 이해도가 높은(9~10점) 연령대는 20대(6.7%)로 나타났으며, 여성(2.5%) 보다는 남성(6%)이 많았습니다.

Sustainable Investing Strategy

국민이 선택한 ESG 투자 전략

전 세계 자본 시장은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투자시 기업의 ESG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은 투자 의사결정시 어떤 ESG 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MZ 투자자, 인권·포용성·다양성 중요

MZ세대와 그 외 세대가 투자시 고려할 ESG 요소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S(사회) 항목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M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인권, 포용성, 다양성(1.51%p)' 요소를 투자시 가장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1.07%p), 임직원 건강/복지 및 안전(0.94%p)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및 임직원을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다른 세대 보다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MZ세대는 다른 세대 보다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MZ세대와 그 외 세대의 격차 Top5 중에서 '이사회 전문성/투명성(0.71%p)'과 '감사의 독립성(0.69%p)' 2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2030의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E ● S ● G

우선 순위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투자시 우선 고려할 Top5 ESG 요소	투자 비중 차이(%p)
1	인권, 포용성, 다양성	1.51
2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1.07
3	임직원 건강/복지 및 안전	0.94
4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0.71
5	감사의 독립성	0.69

국민에게 투자금이 있다면

국민 1,000명에게 1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자 기업의 어떠한 ESG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투자시 고려할 ESG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중요도(%)의 총합이 100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국민들은 기업 투자시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관리(11.16%)'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품 품질 및 안전(8.46%)'과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8.28%)',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특허 획득(8.18%)'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상위 5개 항목 중 환경 영역이 무려 4개(80%)로, 환경 및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상위 항목 5개 중에서는 '제품 품질 및 안전' 이슈가 유일하게 포함된 S(사회)영역으로, 고객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수준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투자 하위 5개 항목 중 80%로 거버넌스 영역이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끄니다. 이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감사의 독립성, 법률 규제 및 리스크/위험 관리, 주주 권리 보호 및 소통 이슈가 투자 의사결정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슈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E ● S ● G

우선순위 국민이 투자시 고려할 ESG 요소

단위: 투자 비중(%)

1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 관리	11.16
2	제품 품질 및 안전	8.46
3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8.28
4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특허 획득	8.04
5	에너지 사용 및 관리	8.18
6	물 사용 및 폐수 관리	7.71
7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위험 평가	6.54
8	인권, 포용성, 다양성	5.2
9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4.82
10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	4.63
11	반부패 등 비즈니스 윤리	4.48
12	생물다양성 및 생태 영향	4.16
13	상생/공정경쟁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4.09
14	임직원 건강/복지 및 안전	3.4
15	주주 권리 보호 및 소통	2.81
16	법률 규제 및 리스크/위험 관리	2.75
17	감사의 독립성	2.64
18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2.57

Chapter 5.

Beyond 2022

우리가 만드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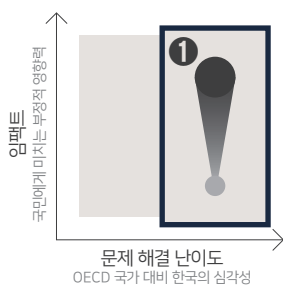
Conclusion 결론 및 제언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사회, 환경을 움직일 현재와 미래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과 자원이 효과적·효율적으로 투입되고, 협력을 통한 솔루션을 확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미디어 분석, 일반 국민 설문조사,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등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현재와 미래, 문제 해결 전략 방안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한국의 문제 해결 수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①Do First : 우선순위 영역, ②Do Plan : 주요 관심 영역, ③Do Monitor : 모니터링 영역, ④Delegate : 위임과 실험 영역 등 4가지 문제 해결 전략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① Do First :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도 커지는 사회문제



우선순위 영역(Urgent)은 문제 해결이 어렵고(난이도 50점 이상),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는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이도와 임팩트가 모두 높기 때문에 해당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기와 기회 모두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및 역량을 집중해 문제 해결과 미래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 해결 난이도
어려운 재취업	89	93	87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88	96	83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84	90	92
저출산 문제	71	82	92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54	81	92
가계부채 증가	72	78	69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75	83	60
만연한 특권과 편법	76	79	51
구인 및 인력난	53	64	84
고용률 하락	45	52	61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47	48	62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41	54	55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17	42	56
해수면 상승	3	16	89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12	13	78
물순환 개선 및 재이용 부족	11	24	58
태풍 증가	7	9	70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9	22	53

*현재와 미래 임팩트 및 문제 해결 난이도를 모두 합산한 값으로 Top 20 이슈를 도출했다.

고용 불안, 최우선 이슈로

일반 국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 예상되는 이슈들은 고용 불안과 기후 위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2022년 모든 주체가 집중하여 해결해야 하는 1순위 이슈는 '어려운 재취업'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2021년에는 Top20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슈로, 2년 만에 1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용률 하락' 역시 2년 만에 포함된 이슈로, 고용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들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정부·기업·국회 및 정당에 있다고 한 만큼(p.52), 주요 주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 위기, 지금부터 대비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인 빈곤 심화 이슈는 3년째 Top3에 올랐고,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역시 2020년 13위에서 2021년 9위, 2022년에는 5위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3년간 Top10 이슈에 오르며, 현재와 미래의 가정경제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고민과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도 큰 상황입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문제는 2020년 14위에서 2021년 4위, 2022년은 3위로 떠오르며 지속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38위로 최하위였습니다(2020년 기준). 그 외에도 해수면 상승, 물 순환 개선, 생물다양성 감소 등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원의 예산을 배분'한 설문 결과, 지난해 보다 가장 많은 예산(▲2조2140억원)을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문제 해결에 투입하고자 했습니다(p.17).

② Do Plan :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은 사회문제



주요 관심 영역(Important)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난이도 50점 미만)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임팩트가 높지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 영역(Urgent)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과 역량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 다가올 미래 문제에 대한 효율적·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보다는 기회가 큰 영역으로 전략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 해결 난이도
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90	92	40
지구 온난화	80	95	32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82	98	25
폭염·한파 증가	94	97	13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51	88	31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66	70	28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74	87	1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63	75	22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55	77	17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35	71	43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64	69	15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56	59	23
가뭄·홍수 증가	38	51	49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36	63	29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39	55	12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22	44	35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26	35	34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5	40	26
지진과 쓰나미 증가	24	25	38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18	34	33

*현재와 미래 임팩트 및 문제 해결 난이도를 모두 합산한 값으로 Top 20 이슈를 도출했다.

주거의 질 높이고, 세대 갈등 줄여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서, 노후 주거지 불안 문제가 1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2020~2021년에는 순위권에 들지 않았던 문제로, 주거의 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신자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와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올해 처음으로 3위에 올라 불확실성 속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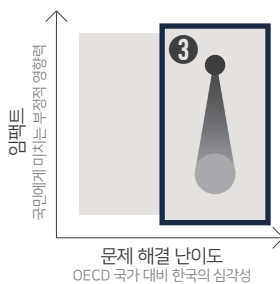
또한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문제도 올해 새롭게 '주요 관심 영역(Do Plan)'에 편입됐습니다. 특히 MZ세대는 다른 세대 보다 성별격차 및 성차별 문제를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p.xx).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앞으로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관심 영역은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을 통한 임팩트가 크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한파, 자원순환 노력 필요

지구온난화, 폭염 및 한파,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부족 문제는 현재보다 미래에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염 및 한파, 가뭄 및 홍수 증가 문제가 올해 새롭게 '주요 관심 영역(Do Plan)'에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의 한국의 가뭄·홍수 발생량은 32개국 중 18위로, 2019년(5위/26개국)에 비해 급속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미래 위기를 대비하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부족 문제가 현재보다 미래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새롭게 포함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정부는 자원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를 통해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과 솔루션을 알리는 인식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개인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③ Do Monitor :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지만,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작아지는 사회문제



모니터링 영역(Monitoring)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낮아지지만,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 꾸준한 자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경우, 더 나은 사회 변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현재보다 미래에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아지는 사회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 해결 난이도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97	91	81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5	74	86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78	73	92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96	85	56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73	65	90
미세먼지 증가	80	55	92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87	80	54
청년 일자리 부족	86	68	65
지역발전 불균형	79	72	66
성별격차 및 성차별	69	50	92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0 이슈를 도출했다.

격차와 갈등 해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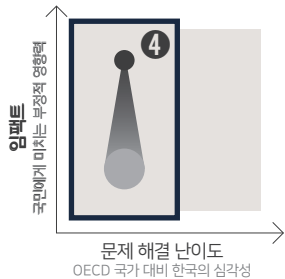
국민의 관심과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으로 삶의 질 저하 문제 해결이 공통적으로 꼽혔습니다.

GDP 대비 사회적 지출(Social benefits)을 보면, 한국은 6.42%로 OECD 35개국 중 32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역시 OECD 37개국 중 최하위(2019년 기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꾸준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지역발전 불균형, 성별격차 및 성차별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갈등 문제가 미래에 더 심화되지 않도록, 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성별격차 및 성차별 문제는 기업 차원의 임직원 및 다양성 존중을 통해 매년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소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환경 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올해 새롭게 모니터링 영역(Do Monitor)에 편입됐습니다. 당장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지만, 정부·기업·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 등 관련 주체의 꾸준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④ Delegate :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고,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도 작아지는 사회문제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현재보다 미래에 작아지며, 문제 해결 난이도도 낮은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등이 모든 액션을 주도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나 개개인의 주도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자원 및 역량 투입 시 후순위로 배분하여 다른 문제로 인한 위기에 먼저 대비하는 것이 권장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현재보다 미래에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아지는 사회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 해결 난이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95	86	47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92	89	36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8	94	8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93	84	21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91	76	16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67	62	45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77	67	19
대형산불 증가	83	65	4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52	49	41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61	57	14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0 이슈를 도출했다.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야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에는 정부 신뢰 하락, 감염병 확산,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성범죄 증가 등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이슈들은 현재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 및 기업의 협업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변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인식개선을 통해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축적될 때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가 기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산불 증가,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이슈들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 주체로서 개개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화합을, 간극을 메우는 협력을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 결과, ‘신뢰’와 ‘공정’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의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로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가 2020년 19위, 2021년 13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지역발전 불균형’,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2020~2021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3년간 지속적으로 ‘차별 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고 답해왔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얻고, 차별과 배제 없이 화합할 수 있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세대별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대한 격차가 커지고, 이념·성별·지역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Z세대가 다른 세대 보다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문제는 ‘성별 격차 및 성차별’로 나타났고, M세대에서 Z세대로 갈수록 정부 보다는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세대별로 해결을 바라는 사회문제가 다른 만큼, 이러한 니즈에 맞는 세밀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지난 3년간 자영업자의 삶은 가장 힘들었고,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국민들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정서불안 및 자살증가 문제를 겪는 이들은 코로나 발생 이후 더욱 불행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을 기대하는 지금,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정부·기업·국회 및 정당·국민 개개인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증가했지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가 줄어든 만큼, 모두가 문제해결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자본·정보·역량·네트워크가 갖춰지면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할 것이라고 답한 만큼, 이러한 자원과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뢰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체질 개선과 세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정부를 비롯한 기업·국회 및 정당·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향한 신뢰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가족과 사회적기업·소셜벤처를 제외하고는 개개인, 이웃, 미디어, 국제기구, 외국인 등 거의 모든 주체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와 너를 넘어 우리를, 지역과 국가를 넘어 지구를 생각하는 협력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려는 의향이 높아지면서,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수준과 제품 품질 및 산업 안전보건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람 중심 경영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기업 정책 및 전략을 고도화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기업의 부정적·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발행일 2022년 7월 1일
기획 및 연구 CSES·triplelight
디자인 디션

※2022 일반 국민 설문조사 로데이터와 설문지는 SV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Website

www.svhub.co.kr
www.triplelight.co

Address

04348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45길 28 CSES 사회적가치연구원
04315 서울 용산구 원효로 90길11 용산더프라임 208호 트리플라잇

E-mail

research@cses.re.kr
impact@triplelight.co

연구 리포트에 수록된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은 CSES·triplelight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2022 CSES · triplelight. All rights reserved.

픽토그램은 www.flaticon.com의 자료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